



모교 법인화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 壬辰年 신년교례회 1천여 명 한자리에



개학 117주년·통합개교 66주년 기념 신년교례회

본회 林光洙회장은 지난 1월 12일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가 발족한 올해는 모교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라며 “모교 법인화의 성공여부는 모교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3면>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6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 ◆일 시 : 2012년 3월 16일 (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 ◆내 용 :
 - ① 제14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 ②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 사업계획 보고
 - ③ 임원 개선
 - ④ 기타 안건 심의
- ◆회 비 : 없음

※ 한정된 좌석(1000석 한정)과 식사 준비 관계로 반드시 사전 예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동창회 156차·관악회 113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관악출추

동계·하계 올림픽을 다 개최한 나라는 일류 선진국 6개뿐이다. 한국도 다 개최하게 되니 이 점에서 G7이 되는 셈이다. 일류 선진국은 모두 스포츠 강국이고, 세계 최강국 미국은 스포츠 역시 최강국이다.

필자는 미국 유학 시절 맞이한 첫 설날 미식축구 결승전이 열리는 것을 보고 매우 의아해 했다.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 교수께 그 이유를 물었더니 미국은 국민건강, 팀워크 정신 및 전략훈련을 위해 3대 스포츠, 곧 아메리칸 풋볼, 야구 및 농구를 장려한다고 했다. 특히 풋볼을 중시하는데 시험을 고등학생은 금요일, 대학생은 토요일, 프로는 일요일에 해서 겹치지 않게 한다고 했다. 풋볼은 전신을 다 사용하는 과학적 두뇌게임이며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시험은 남북전쟁을 방불케 한다는 사람도 있다. 미국인은 새해를 스포츠 및 전략 훈련과 더불어 시작하는 셈이다.

일류 선진국은 모두 스포츠 강국!

중국 철학자 양수명은 오래전 중국인은 스포츠를 하지 않아서 큰 문제라고 한 바 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다. 어떤 분은 정치인들이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아 걱정이란데 팀 스포츠를 통해서 길러지는 페어플레이를, 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는 건강, 페어플레이, 전략훈련 등 여러 면에서 극히 중요하다. 운동부족으로 소아비만, 고혈압, 척추 및 성격 장애 어린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선진국들이 보건 의료비 증가로 재정 적자를 앓고 있는 것은 스포츠 잘못과 관련이 깊다.

한국이 명실 공히 G7선진국이 되려면 세계 수준의 미래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 미래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서도 청소년 스포츠 혁신이 긴요하다. 영국인의 리더십은 이튼고등학교와 운동장에서 시작됐다는 말도 있다. 입시 개선 등으로 청소년들이 개인 및 팀 스포츠를 일정 수준까지 올린 다음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宋丙洛논설위원)



孫一根·金讚淑·趙完圭·李世中·李吉女·朴明珍·吳然天·金鍾燮·林光洙·朴奉植·權彝赫·洪性大·鄭元植·任廷基·姜信浩·尹勤煥·李基俊등문

“동문의 헌신·나라사랑이 오늘의 서울대 이뤘다”



林光洙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들이 영접하는 모습



공로패 수상자와 함께 : 文允奉·金權震·朴昶緒(金相璫 대리)·朴武益(朴孟浩 대리)·林光洙·禹敬子·李鎮杓(李鎮芳 대리)·洪禮杓·金鍾燮등문

유공 동문 13명에 공로패 수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동문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학 117주년·통합개교 66주년 기념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SBS 朴憲慶(의류94-99)이나 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가 발족한 올해는 모교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라며 “모교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세계로 나아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야 하며, 모교 법인화의 성공여부는 모교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본회와 각 단과대동창회에서 지원한 장학금은 역대 최고인 19억4천여 만원으로 총 6백92명에게 수여됐는데 올해부터는 장학발당의 임대수입을 합쳐 연간 33억원의 장학금과 교수연구지원금 17억원을

지급해 모교에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의 성과 및 의미를 설명하며 “서울대인의 자부심과 긍지, 명예를 영원히 보존하고 1백17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개학이 자랑스러워 모교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널리 홍보할 역사기념관 건립 계획을 세우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동문들의 땀과 눈물, 헌신과 나라사랑의 결과로 오늘의 서울대가 이뤄졌다”며 “동문들이 이룬 개인적 성취의 합은 단순 합계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공통 자산이고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또 모교 법인화와 관련해 “모교의 법인 전환은 대학의 자율성을 상징한다”며 “대학의 자율이 구성원의 자기 이익을 방어하는 자기중심적 수단으로 귀착돼선 안 되며, 자기 책임을 중시하고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우선시하는 자율이야말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교는 우수한 인재를

뽑는 교육기관이 아닌,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세계의 밝은 미래를 보려면 서울대로 오라는 믿음을 우리의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회 權彝赫·姜信浩·鄭元植고문,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李吉女·洪性大부회장, 모교 朴奉植·趙完圭·李基俊 前총장, 吳然天총장, 朴明珍·任廷基 부총장 등이 새해에는 동문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모교와 동창회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하며 참석자들을 대표해 시루떡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2부 순서에는 모교 성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중창단이 축가로 ‘Stein Song’, ‘경복궁타령’, ‘여자의 마음(La Donna e mobile)’, ‘Oh, Happy day’ 등을 불러 동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동문들의 박수에 힘입어 중창단은 즉석에서 앵콜곡으로 ‘희망의 나라로’를 불렀다.

중창단을 대표해 明晟旻(성악 07-11)동문은 “지난 몇 년간 신년교례회에 초청돼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여러 선배님들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

며 “이 자리에 계신 동문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權彝赫고문은 세월의 흐름이 화살과 같이 빠르다는 뜻의 ‘光陰如矢’를 인용해 건배제의를 하며 “대학을 졸업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찌다보니 九旬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한 뒤, “스무살의 젊은 이라도 꿈과 희망이 없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늙은이와 마찬가지고, 아흔 넘은 사람이라도 꿈과 희망이 있다면 청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 계신 동문 모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청춘으로 만들길 바란다”며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가자!”고 힘차게 외쳤다.

유공 동문 시상식에서는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단과대학(원) 및 지방지부, 특별과정동창회 직전 회장인 朴孟浩(인문대)·洪龍濤(상대)·禹敬子(생활대)·洪禮杓(치대)·李鎮芳(경대원)·金鍾燮(ROTC)·金相璫(전안지부)·李相昊(HPM)·鄭鍾守(AMPP)·文允奉(AMPFRI)·金權震(SPARC)·姜淳奎(IFP)·金東洙(ASP)동문 등 1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鄭元植고문



李吉女부회장



李世中부회장



孫一根·朴明珍·李吉女·趙完圭·姜信浩·吳然天·林光洙·權彞赫·鄭元植·朴奉植·李基俊·洪性大·任廷基등이 시루떡을 나누고 있다.

“새로운 비전으로 세계인이 찾는 모교 만들 것”



權彞赫교문 건배제의



앵글곡 '희망의 나라로'를 열창하는 모교 남성중창단의 모습



사회를 맡은 朴恩慶아나운서



李基俊 前총장



任廷基연구부총장



胡文赫교수협의회장

모교 법인 출범 축하하며 발전 기원

만찬 중에는 본회 鄭元植 교문, 李吉女·李世中부회장, 모교 李基俊 前총장, 任廷基 연구부총장, 胡文赫교수협의회장이 새해 덕담을 했다.

鄭元植교문은 “인간은 주어진 환경조건에 의해 직업성이 길러지고 장차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며 “모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자질은 대단히 뛰어나지만 그 자질 자체가 장차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란 사실을 약속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동창회에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후배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동문들의 역할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李吉女부회장은 “아주 어려운 난관 끝에 모교가 법인으로 전환됐다”며 “林光洙회장님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과 吳然天총장님 이하 교직원들이 합심해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吳然天총장님이 신년

사에서 세계인이 모이는 서울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후폭이 승천하듯 모교도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李世中부회장은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을 보면 실망과 좌절만 하게 된다”고 운을 뗀 뒤 “총선과 대선에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올해는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이 발전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면 좋겠고, 모교도 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변화하길 바란다”고 모교 발전을 기원했다.

李基俊 前총장은 “모교 법인화, 장학빌딩 완성, 모교 역사 찾기 운동의 업적을 이룬 林光洙회장님과 吳然天총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며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최근 종영한 SBS의 역사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를 보면 보통의 역사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모교도 세계 표준에 맞는 차원에서 새로운 대학의 모범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여기 계신 동문들도 사회

를 이끌어가는 지도층답게 노력 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타의 모범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任廷基연구부총장은 “모교의 교조는 학으로, 푸른 창공을 높이 나는 학처럼 모교는 법인화의 틀을 타고 더욱 힘차게 하늘 높이 날 수 있기를 바라고, 동문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 높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동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胡文赫교수협의회장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유명해졌다’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말을 인용해 “새해에 눈을 떠보니 관복이

벗겨지고 사복을 입고 입더라”며 모교 법인화로 바뀐 교수들의 신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리는 온실 속에서 자란 모교가 온실 밖 현실에서도 잘 자라기 위해서는 동창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모교 법인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수건과 다이어리를 기념품으로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강양조장 趙在九(산림자원 83-90)대표가 막걸리를 협찬했다. (智)

관악언론인회 2012년 정기총회

2월 29일 (수)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

서울대 언론인 출신 모임인 관악언론인회가 제10회 정기총회 및 제9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동문 언론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2년 2월 29일(수) 오후 7시
- ◆장 소 :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내 용 : ① 의안 상정 및 의결·경과보고
② 제9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

관악언론인회 회장 裴 仁 俊

느리나무광장

무엇이든지 '最'자를 붙이기 좋아하는 습성 때문인 듯 관악산자락을 바라보면 '최'의 유혹을 다시 받는다. 1976년 초 관악캠퍼스 '최초' 졸업생인 필자는 이제 2012년 2월에 학위수여식, 곧 졸업식을 법인화 이전의 '최후' 졸업식으로 보게 될 것이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모든 학내 행사는 모조리 '최초'가 붙을 것이다. 서울대가 법인으로 공식 출범했기 때문이다.

법인화라는 개념에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사회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그게 낯설지 않다. 어쩌면 사회가 그동안 너무나 빨리 변하는 가운데 학문의 전당인 대학은 거기에 적응하기에 쉽지 않았던 터, 그 중에서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고등교육에 배정되는 국가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모교를 염두에 두고 집행됐고 학문연구나 수업, 학교운영 등의 기준이 곧 모교였기에 그만큼 정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면 이제 국가사회가 더 공평한, 더 보편적인 정책을 원하고, 거기다가 다른 대학, 특히 외국의 대학들이 보여주는, 국가의 지원을 떠난 발전상황에 눈을 뜨면서 모교도 온실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을 수 없는 때를 맞은 것이라 하겠다.

사실 정보소통의 혁명이 도래한 이후 국회나 정부,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기

李 東 植
KBS비즈니스 감사
본보 논설위원



법원 등 국가를 지탱하는 3권이 모두 환골탈태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 속에 제4부로 대변되던 언론사들도 이른바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바, 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문연구만이 아니라 현실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배양하는가를 놓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아가서는 대학이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아이디어의 창고가 돼야 한다는 주문도 늘고 있다. 거기에는 당연히 재정의 효과적 배분, 재정의 효율성, 새로운 창조성의 개발이 근본바탕이 되는 만큼 온실문을 열고 뛰쳐나간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긴 재정의 여유는 곧 학문연구에의 적극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농사를 오래 지어 산성화된 토양은 농사가 시작되기 전인 겨울에 객토를 하고 땅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준다. 새로운 흙과 양분을 공급받는 서울대학교는 비법인화 단계의 최후의 졸업식으로 과거시대를 마감하고, 새 봄을 맞아 법인화 이후 최초의 입학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인재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싱싱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길로 험갯 달려가기를 기대해본다.

관악시단

미숙한 인간

金 相 基(국어교육65-69)
前대전MBC사장·시인

흐르는 물을 보아라
무심하게 흔들리는 갈잎을 보아라

굽이치는 대로
바람 회롱하는 대로
언제나 담담하게 몸을 맡길 뿐이다

그러나 보아라
물은 어느덧 천 리를 흘러
먼 바다에 이르고

갈대는 풍상 섞여 치는 겨울을 지나
봄 햇살에 푸르른 새순으로
다시 또 피어난다

짧은 삶을 한하고
죽음을 슬퍼함은 오직
미숙한 인간뿐이거니

한 점 이름 없는 풀꽃이나
풀밭에 깃든 작은 벌레들이
잘난 인간보다
오히려 먼저 열반에 들어선다

동문칼럼

올해 건국 이래 최대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3월 26~27일 이틀 동안 열리는 2012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www.seoulss.go.kr)다. 이번 회의에는 47개국 이상의 국가 정상 및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4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0년 국내에서 열렸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규모를 훨씬 웃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핵 안보'이다. 다소 생소하고 전문적인 분야여서 그런지 동문들의 이해도와 관심도가 낮은 것 같다. 하지만 원자력 안전의 경우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예측된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건이지만 테러리스트가 악의적인 의도로 원전을 공격한다면 그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핵 안보는 이와 같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핵 폭발물의 사용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기

의로 평가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회의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워싱턴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방사성 물질에 대한 방호 문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과 핵 안보의 연계 문제 등을 함께 다뤄야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을 폐기 내지 원자력발전에서 태워 없애는 노력도 계속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본 회의의 성격과는 맞지 않고 6자회담이라는 기존 창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張 相 九
(기계공학70-7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2012년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에는 워싱턴 회의 때보다 더 많은 정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가 개최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핵 안보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생각 때문인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위한 모든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가리킨다. 핵 테러에 대한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전 세계는 핵 테러를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여러모로 진행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될 핵 안보 정상회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전 세계 43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일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워싱턴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전만을 다루게 된다면 성공적인 회

지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줬던 국민적 관심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G20 회의가 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국격을 한 단계 올렸다면, 2012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는 정치·안보 분야에서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확신한다. 또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내 핵 안보 수준 및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외 신뢰성이 높아진다면 향후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2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는 한국의 국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 때문에 국민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문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본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朴 薦 壽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전화 (02) 702-2233 팩스 (02) 886-2218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邊榮顯, 玄智愛

법대동창회

법학전문대학원 첫 졸업생 나와

법과대학동창회(회장 金慶漢)는 지난 1월 18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3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金慶漢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2월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졸업생이 배출된다”며 “우리 동창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그들을 환영하고, 상호간 일치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895년 개소한 법관양성소의 1회 졸업생인 李 儁열사를 기리기 위한 동상 제작도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올 봄에 제막식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올해 모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했다”며 “법인화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우려의 목소리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모교가 성공적으로 법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鄭宗燮·李大淳·金滉植·玄勝鍾·金慶漢·林光洙·丁海昌·梁承泰 동문

동문들이 합심해 모교의 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교 법대 鄭宗燮학장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 1백50

명 중 1백20명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으며, 이 중 90여 명은 진로가 확정된 상태”라고 말한 뒤 “이들을 법대 동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도 있지

만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등 여러 동문들이 금품을 협찬했다.

상대동창회

朴容晟동문 ‘빛내자상’ 수상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成耆鶴)는 지난 1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정기총회 겸 신년 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成耆鶴(무역66-70)회장을 비롯해 4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힘써준 동문들을 격려했다.

成耆鶴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단과대를 남다른 데 있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사회가 처한 분열을 치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켜 세계 번영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동문상인 ‘빛내자상’은 대한체육회 朴容晟(경



朴容晟동문·成耆鶴회장

제59-65)회장이 수상했으며, 장학금을 출연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둑자상’은 金正銀(경제52-56)·李鍾衍(경제52-56)·沈鼎求(경제

53-57)동문 등 30명이 받았다. 특별공로상은 洪龍濤(경제64-72)前회장이 수상했다.

朴容晟동문은 수상소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공헌했다고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생애 최고의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치르게 됐으니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행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해 덕담으로 金文洙(경영70-94)경기도지사는 “태극기 아래 남과 북이 하나가 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능가하는 선진 강대국으로 발전하는데 동문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鄭夢準(경제70-75 본회 부회장)국회의원은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아 걱정이 많다”며 “선배님들이 지도편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9백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감각기관이다. 생활정보의 80% 정도가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영양실조, 감염 등으로 인한 실명이 많았지만 요즘은 당뇨망막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 비만, 고혈압, 흡연 등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나는 눈 관리를 위해 식사를 할 때도 시금치와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와 생선을 섭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햇볕에 장시간 노출돼 있는 것도 좋지 않으므로 여름뿐 아니라 사시사철 바깥 출입을 할 때는 되도록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이용해 자외선을 차단한다.



具本術

● 눈 건강 위해 체중 조절

이 원인이 돼 생기는 눈질환이 많아져 심할 경우 실명에까지 이르게 한다. 최근에는 저시각도 늘어나서 문제다.

문제가 생기면 수술로써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금연은 필수이고, 혈압과 체중관리를 위

실내에서의 과도한 조

명도 눈의 피로를 증가시킨다. 책이나 컴퓨터를 볼 때는 중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눈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평생에 걸쳐 관리하고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의학44-48)실명예방재단 명예회장



나이가 들면 신체의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병이 들어오는 곳을 알면 병을 내보낼 수도 있는 법. 병이 마음으로부터 왔으면 마음으로 내보내야 하며 물리적인 약에만 의존하면 그 약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건강과 치료에 좋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추천한다.



李堯燮

● ‘이미지 트레이닝’ 활용

이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건강하다’는 믿음과 의지이다. 나는 디스크 관정을 받고 걸을 수 없었지만 반대로 약을 끊고 계속해서 스스로 개발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 걸을 수 있

다는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 지금은 오히려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시 견고 건강해졌다. 이렇게 시작된 마음가짐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주장한다. 이 훈련에서 시작된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 봉사를 하는 나눌 사 업도 실천하고 있다. 이런 태도에는 신앙도 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이를 통해 정신 건강까지 회복시키는 것이다. (대학원67-69)前국기검도회 회장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鄭晶姬 作

〈작가약력〉

- ▲1949~1953 모교 조소과 졸업
- ▲1960~1961 美 필라델피아 뮤지엄 미술대학 수학
- ▲제6회 국전 특선 수상
- ▲대한민국공예대전·동아미술제 심사위원, 혼올회 회장 역임
- ▲1970~2011 서울·독일·미국 등지에서 개인전·그룹전 다수
- ▲現한국섬유미술가회 고문·혼올회 회원·섬유미술작가

‘힘’, 모사 태피스트리, 160×120cm, 1983

연극동문회

사무실 개소식 열어

연극동문회(회장 李順載)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삼창빌딩 9층에 자리한 동

문회 사무실에서 개소식 겸 신년 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李회장을 비롯해 건국대 金學泉(독어교육59-63)교수, 탤런트 沈洋弘(국문64-71)동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林順澤(외교69-75)부회장 등 50명의 동

문이 참석해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동문회는 올해의 핵심사업으로 모교 연극사로 편찬, 정기 공연, 관악캠퍼스 전용극장 설립, 극작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智〉



간호대동창회

모교 시뮬레이션 실습실 마련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洪京子)는 지난 1월 11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洪京子회장은 인사말에서 “모교가 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개교 이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동문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밝음과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긍정의 마음,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공감의 능력,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희망의 힘으로 보람찬 역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교 李仁淑학장은 “올해에는 시뮬레이션 실습실을 완성해 교육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에티오피아에서 국제지원활동을 시작하는 등 한국과 세계 간호계를 리더하는 최고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라며 “간호의 정체성과 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동문 여러분도 지켜봐주고 성원해달라”고 축하했다.

이후 모교 간호학과 朴貞浩(간호58-63) 명예교수, 金花中(간호63-67) 전보건복지부 장관, 崔明愛(간호66-70) 전한국간호과학회장 등이 새해 덕담을 하며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洪京子회장은 모교 병원 金明愛(간호71-75) 간호본부장의 퇴임을 위로하고, 신임 宋慶子(간호80졸) 간호본부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농화학과동창회

젊은 동문 참여 독려

농화학·응용생명화학전공동창회(회장 徐靑源)는 지난 1월 1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블루쉬버에서 신년모임을 개최했다.

신임 회원들을 축하하고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날 모임에는 徐靑源(농화학72-79 명지대 교수)회장을 비롯해 尹錫厚(농화학73-77 한국식품연구원)수석부회장 등 7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신년 덕담을 나눴다.

토목공학과동창회

총회서 사업계획 의결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片宗根)는 지난 1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고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朴英錫(토목공학71-75)총무부회장이 동창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한 뒤,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부에는 만찬과 함께 성악가 신금호(성악91-98)동문의 시네마 클래식 공연이 이어졌다.



金祥源·金康植·宋煥昌·潘性純·李鶴來·辛東韶·鄭潤煥·尹勤煥·金榮鎮동문

농생대동창회

59·60학번 동기회 주관 신년회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1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고수회관 무궁화홀에서 2012년 제1회 임원회의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59·60학번 동기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46학번인 宋煥昌동문부터 09학번 재학생까지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鄭潤煥회장은 인사말에서 “요즘 반값 등록금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옛말에 우리 조상들이 十匙一飯이란 아름답고 고귀한 협동정신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미덕을 보여주었듯이 여러 동문들 한 분 한 분이 조금씩 모교에 도움을 주신다면 농생대 재학생들에게 50%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59·60학번 동기회는 행사비용 일체를 지원했으며 장학기금으로 2백만원의 출연하기도 했다.

60학번 동기회 徐基浩(농학60-64)대표는 “행사 주관 부락을 받았을 때 난감하기도 했지만 준비를 하면서 50년 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도 많았고 이를 통해 오히려 동기회가 활성화됐다”며 동창회 측에 고마움을 전했다.

시루떡 나눔 행사 전에는 재학생 후배들이 무대에 올라 선배 동문들께 큰절을 올리며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동창회는 학생회에 격려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鄭潤煥회장이 무릎담요와 장갑을 기념품으로 제공했으며 李淳國 前신호그룹 회장이 막걸리를 협찬했다.

대전·충남지부동창회

정기이사회 개최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1월 16일 대전시내 유성관광호텔에서 제42차 정기이사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2011년 지부 행사의 경과보고와 사업 결산에 대해 승인하고 2012년 사업계획 심의를 의결했다.

동문들을 위한 신년 축하 음악회에서는 트럼펫 연주, 대금과 국악가요 등을 선보였다.

춘천지부동창회

새해 사업·행사 논의

춘천지부동창회(회장 林正根)는 지난 1월 10일 춘천시내 중식당 회영루에서 신년맞이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2011년 회계 결산을 보고하고 2012년 사업계획인 ▲정기모임(매월 둘째 주 화요일) ▲논어교육 세미나 ▲장학사업 ▲봄·가을 등산대회 ▲골프모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다가오는 4월 총선에 출마 예정인 동문들을 격려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부동창회

모교 변화 관심 부탁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崔敬鎮)는 지난 1월 19일 대구시 노보텔 버건디홀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崔敬鎮회장은 인사말에서 “법인화로 인한 모교의 새로운 변화에 동문들도 관심과 지혜를 모아달라”며 “올 한 해도 동문간 유대를 강화해 지역사회와 모교 발전, 국가와 민족사회에 기여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동창회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치대·치대원동창회

신임회원 초청 오리엔테이션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金秉燦)는 지난 1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DCO(Dental Community Orientation) SNU 2012’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모임은 동문 선배들이 최근 치과의사 국가고시를 치른 예비 졸업생들에게 의사로서의 삶을 조언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동문 40여 명과 예비 졸업생 80여 명이 참석해 5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며 선후배간 정을 쌓았다.

金秉燦회장은 “곧 동창회원이 될 후배들의 졸업과 치과의사로서의 출발을 축하하고 동종업계의 선배로서 조언을 들려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동창회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음을 늘 기

억해 달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 치대인으로서 정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모교 치의학대학원 崔珣哲(치의학73-79)원장과 金明鎮(치의학70-77)치과병원장의 격려사에 이어 韓星熙(치의학79-85)·朴英彩(치의학87-93)·梁勝旭(치의학89-95)·吉大炫(응용생물00-06·치대원07-11)동문 등이 나와 ‘치과의사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경험담을 들려줬다.

최근 병원을 개원한 吉大炫동문은 “제가 졸업할 때 이런 자리가 있었다면 페이닥터 시절부터 개업을 하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조금은 줄였을 것 같다”며 “최고의 실력을 쌓기 위해 늘 공부하는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榮)

고성방가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에게 문제를 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이들의 답이 제각각이었다. “고음불가” “이럴수가” “미친건가” 그런데 한 아이의 답에 모두 뒤집어졌다. “아빠인가”

치명적인 음식

한 의사가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강연에 나섰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쪼뽏합니다. 탄산음료는 위벽을 헐게 만들지요. 세균에 오염된 물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해로운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섭취하거나 먹게 될 음식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있습니다. 섭취 후 오랜 세월동안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제십니까?” 잠시 후 앞줄에 앉은 75세 노인이 손을 들고 말했다. “웨딩케이크요.”

상대성의 원리

아인슈타인이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하느님께 물었다. “신이시여, 당신에게 1백만년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이 답했다. “1분이지.”

아인슈타인이 재차 물었다. “그렇다면 1백만 달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이 답했다. “1센트지.”

“그럼 저에게 1센트만 주시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묻자 신은 답했다. “1분만 기다려라.”

(독자제보 환영)

기계동문회

홈페이지 활성화 최우선 목표

기계동문회(회장 蔡頌浩)는 지난 1월 13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유니버설룸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孔大植·禹仁性부회장, 모교 李俊植연구처장, 공대 李惠日학장, 기계동문회 李賢淳 前회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했다.

蔡頌浩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장

을 맡으면서 동문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홈페이지(mechdong.mysnu.net)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며 “상호 교류를 위해 홈페이지에 많이 방문하고 글을 남겨달라”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지금 모교는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며 “총동창회는 모교의 이런 노력에 부응해 장학발당을 건립하고, 모교 개교 원년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모



金讚煜·明泰鉉·李俊植·蔡頌浩·林光洙·張翼龍·孔大植·崔相弘동문

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동문들을 단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축하했다.

새해 덕담으로 李賢淳 前회장은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제조업이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교

李俊植연구처장은 “젊은 후배일수록 동문회에 대한 인식이 약한 편”이라며 “학부 단위로 치러지는 졸업식에 선배들이 많이 참석해 후배와 많은 교류를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학과동창회

모교 3개 학과 통합에 관심 촉구

동양사·서양사·국사학과 연합동창회인 사학과동창회(회장 安國正)는 지난 1월 5일 서울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년하례회를 겸한 이날 모임에는 申允植고문, 李濟薰 前회장 등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安國正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간 모교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의 통합을 위해 突然天降장을 비롯해 각 학과장, 동창회장 등을 만났지만 학과간에

이견이 많아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면서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통합의 현장으로 생각하고 역사학부로 승격시키는데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사학인 포럼에서 한국역사문화연구원 李成茂(사학56-60) 원장이 초빙돼 ‘脫亞入歐에서 유교모델로’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李원장은 “21세기는 동아시아 시대”라며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돼 지나친 과학문명, 물질주의



河 沅·盧昌俊·鄭星姬·鄭玉子·鄭樂贊·安國正·李濟薰동문

로 훼손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재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사학인으로 모교 鄭玉子(사학61-65) 명예교수, 코리막스 鄭樂贊(서양사학69-73)

회장, 바텍 盧昌俊(동양사학78-85)대표가 선정돼 상패와 꽃다발을 받았다.

행사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李仁用(동양사학76-86)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달력을 협찬했다.



AIC동창회

세미나서 정보통신 정책 토론

정보통신 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世漢)는 지난 1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모교 정보통신행정연구소와 공동으로 ‘정보통신방송산업 발전과 정부조직의 설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1백여 명을 비롯해 IT 관계자 2백여 명이 참석해 정보통신 정책 변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모교 행정대학원 鄭用德(식품공학69-73)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 고려대 任周煥(전자공학68-72)교수가 ‘정보통신방송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이화여대 宋熙俊(국사72-76)교수가 ‘통신 방송 환경 변화와 정부조직’을 각각 발제했다. 지정 토론자로선 단국대 吳在寅(경영76-

80)교수, 홍익대 李光哲(경영76-80)교수, KAIST 韓勳(산업공학76-80)교수 등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보통신 분야의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독임 형태의 전담 조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창회는 세미나 후 19층 매화홀로 자리를 옮겨 신년교례회 행사를 가졌다.

AIC동창회는 친목 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2007년 11월 사단법인 정보통신방송정책포럼을 발족해 매년 두세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며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회원 수는 31기까지 1천2백여 명이며 GT&T 李世漢(11기)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다.



AIP동창회

權度煒장관 특강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朴泳求)는 지난 1월 11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신년교례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鄭喜鎔 前회장을 비롯해 모교 공대 李惠日학장, 高承永(토목공학76-80) 주임교수

등 3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朴泳求동창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李惠日학장의 축사와 高承永주임교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만찬 후 이어진 학술세미나에서 국토해양부 權度煒(토목공학72-76)장관이 ‘국토해양 핵심과제 실천계획’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智)

AFP동창회

崔同珠회장 선출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동창회(회장 鄭聖立)는 지난 12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 겸 송년회에서 현대산업개발 崔同珠(4기) 고문(사진)을 제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崔회장은 1978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현대백화점 상무, 풀무원 부사장, 올가홀푸드 대표, 제너시스 사장, 현대아이파크몰 대표,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을 역임했다.

2007년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한국유통대상 유통혁신상, 2008년 국가품질경영대회 금단산업훈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ACPMP동창회

자랑스런 동문 시상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徐綜郁)는 지난 1월 1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국화룸에서 1백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동문상은 현대건설 鄭秀顯(건축69-73·3기)사장, 삼표이앤씨 李鍾洙(4기)대표, 은산그룹 鄭雲澤(5기)회장이 수상했다.

2·3월

행사 캘린더

2월 24일(금) 오후 7시

·약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프라자호텔 20층
(문의 : 02-701-3456)

2월 29일(수) 오후 6시

·SPARC동창회 정기총회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문의 : 02-880-4353)

3월 12일(월) 오후 6시

·음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뉴서울호텔 2층
(문의 : 02-876-1440)

3월 14일(수) 오후 6시

·사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문의 : 02-6399-6500)

물전문기업 25년 입소문 한우물만의 독창적인 정수방식



FDA(미국연방 식품의약품)의 무독성 안전성 검사 통과한 물은, 정수기로서 Medical Device로 등록된 물을 수 있는 정수기입니다.

'물'마크는 정수기를 인증합니다.
대한민국 정수기는 까다로운 위생과 품질검사를 통하여 물마크를 사용합니다.
물마크가 없는것은 정수기가 아닙니다.



한우물®

“전기(분해식) 정수기”

「한우물을 만나는 날은
복받는 날입니다」

1. **한우물** 물은 참으로 맛이 있습니다.

- 차, 커피, 음식맛을 아주 좋게하는, 미네랄이 알맞게 들어있는 물입니다.

2. **한우물** 물은 아주 “좋은물” 입니다.

- **FDA** (미연방 식품의약품)의 무독성 •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고 『Medical Device』로 등록 되었습니다. (I.D. CODE : 2087101 LABORATORY NO.:02-3568-1)

3.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 놓고 마실수 있습니다.



○ HAN-CH1000S "관조의눈1010"



○ HAN-CH1000S 레드와인



○ HAN-CH1000S 화이트



○ HAN-CH1000S "관조의눈0916"



○ HAN-EP1000 레드



○ HAN-EP2000 레드와인



○ HAN-EP2000 스카이블루



○ NEW HAN-EP



○ HAN-CH1000 "관조의눈1010"

백 화 점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02)2639-1528
강 남 신세계백화점 02)3479-6297

직 영 매 장

영등포 픽스쇼핑몰 02)2628-9339
강 남 안솔빌리아 02) 557-4804
남대문 수 입 상 가 02)3789-4804

노 원 세 이브 존 02) 978-4804
제기동 안솔빌의보감 02)6370-2804
일 산 태영프라자 031)974-4804

대 전 사 크 존 042)483-4804
울 산 중 앙 점 052)241-5804
부 산 연 산 점 051)851-4806

판매원 (주)대정유통



(주)한우물

1588-4804
www.hanumul.co.kr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MPFRI동창회 宋明義회장
(고래푸드 회장)

최근 식품 및 외식산업보전 최고경영자 과정(AMPFRI)동창회 신임 회장으로 고래푸드 宋明義(24기)회장이 선출됐다. AMPFRI는 보건대학원에서 1996년 개설한 과정으로 ‘놀부’, ‘옛골도성’ 등 우리에게 익숙한 프랜차이즈 식당 경영자들이 본 과정을 수료했다.

올해 창립 15년을 맞이하는 AMPFRI동창회는 9백여 명의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식품·외식산업에 종사하는 동문들은 본회의 행사에 각종 음식과 협찬을 제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서울 정동 ‘고래면옥’에서 宋회장을 만나 운영 계획을 들어봤다.

— 집행부 구성은 마쳤나요.



수들의 모임 등 행사 규모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직접 방문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소통과 나눔’을 모토로 많은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동창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총동창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보건대학원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동창회 사무실이 없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IFP동창회 崔銘洙회장
(매크로인터내셔널 대표)

사업가, 법조계, 의료계, 공무원, 문화계, 언론계 등 매우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기 드문 결속력으로 매년 함께 할 때마다 느끼는 반가움과 행복감에 참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룹입니다. 강의를 함께 듣고 나누는 편안한 대화 속에서 서로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서로가 상대방이 아닌 동반자로서 느끼는 인문 사랑의 시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지난해 11월 각 기수회장단 회의를 통해 1년 단위로 기수별로 돌아가며 동창회 집행부를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2기에서 집행부가 선출돼 사업을 추진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IFP)동창회는 지난 2011년 12월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매크로인터내셔널 崔銘洙(2기)대표를 선출했다. 모교 인문대에서 설립한 IFP 과정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 통찰력의 고양을 통해 미래의 최고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개설됐다. 현재 6기까지 2

“동문업소 가이드북 발간”

“사무총장에 대세관광 최인호(16기)대표를 선임했고, 이번에는 특별히 사무차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기존 임원진이 각각 세분화된 역할을 담당하고 위원장들에게도 체육대회, 해외연수, 세미나, 등산모임 등의 사업을 맡겨 직접 추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새롭게 진행할 사업은.

“인터넷 카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매월 감사를 실시하는 등 동문들의 회비를 절약하고 그 수익금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모금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고문들 예우를 강화하고, 동문들 업소를 지도에 표시한 ‘동문업소 가이드북’을 만들려고 합니다.”

— 임원들에게 고급펜을 선물하셨던데.

“그 펜이 다 닳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자는 의미가 담겨있죠. (웃음) 저도 술선수범해 ‘동문업소 현판식’ 행사를 비롯해 각 기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바탕으로 白道明원장님과 자주 회동을 갖고 모교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동창회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기념품 관련 사업이나 동문할인 혜택 등 총동창회의 다양한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1960년 군산 태생인 宋회장은 수산대 졸업 후 동원산업과 신라교역에서 외환선 선장으로 활동했다. AMPFRI동창회 초대 崔仁植(1기)회장의 추천으로 본 과정을 수료해 동창회에서 4년간 수석부회장으로 봉사했다. 1990년대 중반 군산에서 냉면집으로 시작해 설렁탕집과 ‘고래면옥’이란 브랜드로 레스토랑사업인 ‘고래푸드타운’을 운영하고 있다. 부인과 사이에 1남1녀를 두었다. (榮)

“강의·연수 등 연간계획 수립”

백여 명의 회원이 배출됐으며 IFP동문 심화과정, 인문연수, 산행, 골프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신임 崔회장에게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들어봤다.

— 회장을 맡으신 소감은.

“2백여 명의 동문들과 인문에 대한 관심과 학습, 사랑을 키워가며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잘 운영되는 동창회는 그 집행부를 누가 맡든지 큰 문제나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하기에 임기 출발과 함께 여러 동문들의 의견을 모아 2012년 연간 프로그램을 모두 수립했습니다. 동문들을 위해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이로써 더욱 의미 있는 한 해를 살게 돼 기쁩니다.”

— 동창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생긴 지 3년 정도된 서울대동창회의 ‘막내’입니다. 기업의 중견간부를 비롯해

중에 있습니다. 사무총장에는 한국산업은행 서혜선(2기)이사, 재무이사에는 농협유통 김진영(2기)팀장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 올해의 주요 사업은.

“연간 계획이 미리 공지돼 있습니다. 심화과정 강의(썸머월 둘째 토요일)와 특강 및 7·8기와 함께하는 합동강의 등 연간 10강이 준비돼 있고, 11월에 일본 교토로 연수를 떠날 계획입니다. 산악회와 골프회도 활발히 운영 중이며, 10월에는 IFP동창회 골프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1963년 서울 태생인 崔회장은 건국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매크로인터내셔널을 운영하며 광고와 마케팅사업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4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채소소믈리에 한국에 도입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사단법인 한국 채소소믈리에협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智)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가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업계 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한분의 회원을 케어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몰라자 7F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
S. Noble

www.lh.or.kr



1962년, 최초의 아파트단지 건설
1971년, 최초의 서민 임대아파트 건설
1989년,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1996년,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
2005년,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2006년, 경제 자유구역 건설
2009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할아버지의 대한민국으로부터 나의 대한민국까지

변화의 중심에 늘 LH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가치의 시작
from LH



LH가 하는 일은?

공공 택지의 80% 공급
(여의도 면적의 213배)

총 448만호의 주택건설
(보금자리주택의 80%)

장기임대주택의 72% 건설
(시세 30~60%의 저렴한 임대료)

산업단지 조성으로 169조원 생산,
32만명 고용(전체 산업단지 생산액의 24%)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제의 동문

화제의 동문

명지대 鄭世煜 명예교수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압구정동 토과 즈홀에서 특별한 독창회가 열렸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성악을 전공한 적 없는 주인공의 노래에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다. 마지막 앵콜곡 ‘동무생각’을 부를 때는 전 관객이 하나가 돼 같이 불렀고 그중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자신의 오랜 꿈이기도 했지만 지인들을 모시고 노래로써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지난날의 추억을 되새기고자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는 명지대 鄭世煜(법학56-60) 명예교수는 “정말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연을 위해 南潤錫(성악89-96) 동문으로부터 몇 달간 발성법을 배운 그는 자신의 애창곡 중 ‘돌아오라 소렌토로’, ‘그리운 금강산’, ‘그라나다’, ‘Tonight’(West Side Story) 등 13곡과 앵콜곡 3곡을 합쳐 총 16곡을 엄선해 준비했다. 南潤錫이 “프로 성악가도 13곡 이상은 무리”라며 말렸지만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모든 곡을 무리없이 소화



한 사랑을 놓지 않았다.

“1994년 10월 세종문화회관을 예약하고 독창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李元鍾서울시장이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해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사흘간의 고심 끝에 수락했어요. 덕분에 독창회는 취소해야 했죠.”

법대동창회 행사맨 단골 출연

지난 2005년 대학 동기생 2명과 부부 동반으로 함께 갔던 터키 여행 때는 노래로 국위선양을 하기도 했다. 에베소의 원형극장을 구경하던 중 원형극장 무대에서

주요 요직 거친 지방자치행정 전문가 은퇴후 17년간 이뤄왔던 독창회 개최

했고 첫 독창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경동고 2학년 때 음악부장을 맡으며 학교에 음악을 가르치러 오시던 성악가 洪鎮杓선생님으로부터 각별한 사랑과 지도를 받기도 했어요. 그때 洪선생님이 제게 서울대 음대에 가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며 입학 권유하셨죠.”

그러나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그가 법대에 가길 원했고, 그는 모두의 바람대로 모교 법대에 입학했다.

모교 재학시절에도 노래 잘하기로 유명했던 그는 대학 2학년 때 친구와 함께 서울 동숭동 문리대 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장기대회에 참가했다. 짙막한 개그를 보여준 후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을 멋들어지게 부르니 어디선가 학생 한 명이 무대 위로 올라와 즉석에서 피아노 반주를 곁들여줬다고 한다. 그는 참가자 중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고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

모교 첫 장기대회 1등 차지

모교 졸업 후 국민대 교수, 명지대 법정대학장·지방자치대학원장·부총장, 현대사회연구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파리 제1대학 및 제2대학 초빙교수, 통합농협중앙회 설립위원장,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鄭동문은 지방자치행정 전문가로 바쁜 와중에도 음악에 대

‘여자의 마음’과 ‘돌아오라 소렌토로’ 등을 불렀는데 마침 같은 장소에 있던 3천여 명의 관객이 그의 노래에 반해 사인공세를 펼쳤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여행했던 金律燮(법학56-63)동문은 당시를 회상하며 “외국 관광객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고는 같이 사진을 찍자고 달려들어 일행 모두 많이 놀랐다”며 “친구지만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鄭동문은 2~3년 전부터는 법대동창회 행사에서 축하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는 모교 음대 4학년 재학생과 듀엣으로 ‘입술은 침묵하고’를 부르기도 했다.

“70대 중반이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뒷전에 물러앉아 소일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의학의 발달로 점점 길어지는 노후의 삶을 멋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봐야 해요. 저도 새로운 인생설계로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보고 싶었어요. 독창회도 그런 의미에서 개최한 거고요.”

젊었을 때만큼의 성량은 아니라지만 꾸준한 관리탓인지 그는 아직도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활용해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그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부럽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재미에 도전해볼까 어떠할런지. (智)



사이람 金鉞勳대표

비야흐로 SNS(Social Network Service) 세상이다. SNS의 가장 좋은 예인 ‘트위터’의 한국인 가입자 수는 5백만명.

이들이 하루에 올리는 글은 약 4백만개이다.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SNS는 정보가 되고 사업이 되며, 민심이 되고, 여론이 된다. 이렇게 SNS를 보면 인간의 정서와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

모교는 2월 이처럼 과급력과 사회 반응 효과가 큰 SNS 분야를 조사·분석하는 ‘소셜네트워크컴퓨팅센터’(SNCC)를 국내 최초로 설립하고 초대 센터장에 ‘사이람(CYRAM)’의 대표인 金鉞勳(경제80-

저는 공부도 하기 싫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실패했다는 생각으로 전공하고 관련도 없는 전산실에서 컴퓨터를 붙들고 살았어요.”

金동문은 컴퓨터 폐인으로 방황하며 사회혁명을 꿈꿨던 젊은 날을 떠올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본인은 스스로 그 시기를 “실패했다”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학과 공부와 컴퓨터 사이의 교집합 분야를 창조해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SNA 전문기업업을 일궈냈다.

이렇게 설립된 ‘사이람’은 금융감독원과 같은 특수기관을 비롯해 각 정부기관·대기업·언론사에 이르기까지 약 1백개 기관의 조직네트워크 분석, 시스템 구현, 데이터분석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

民心 읽는 ‘소피언닷컴’ 출시

트위터 민심을 분석해주는 소피언닷컴(sopion.com) 론칭과 SNCC 출범식을 앞두고 있는 金동문은 앞으로의 계획에

초대 소셜네트워크컴퓨팅센터장 맡아 2000년 네트워크 분석 전문업체 설립

84)동문을 임명했다. 소셜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 솔루션 전문기업인 ‘사이람’과 센터를 운영하게 될 金동문을 만나 사람 관계를 엮은 컴퓨터 이야기를 들어봤다.

SNS 정보 쉽고 빠르게 분석

“소셜네트워크 학문은 말 그대로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인류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수리적으로 풀어서 표현한 SNA 분야는 1970년대에 등장했어요. 거기에 컴퓨터 인터넷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지금과 같은 SNS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金동문이 ‘사이람’을 창립할 당시 우리나라는 포털사이트를 만드는 벤처 회사들이 창업의 붐을 타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었다. 그런 시기에 SNS 시대가 도래할 것을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金동문은 “인터넷 사업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안에 담긴 사람관계, 즉 소셜네트워크를 장악한 자가 세상을 평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金동문은 컴퓨터 안에 묻혀있는 인간관계 데이터를 활용해 개체들간의 숨겨진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타깃을 조준할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우리나라 인터넷 회선이 가장 먼저 도입된 곳이 서울대 전산실이에요. 그 때가 1980년대 중반이었는데, 학부생이었던

대해 “양이 많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SNS 정보를 분석해 기업은 고객의 목소리를 더 잘 듣게 해주고, 정부는 국민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읽게 해 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SNCC는 소셜네트워크 학문 분야를 사업화한 저와 모교 사회학과 李在烈(사회80-84)교수, 張德鎭사회발전연구소장의 오랜 꿈이기도 합니다. 사이람은 SNCC가 SNA 연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폰서를 하게 되죠.”

네트워크를 점령한 2030세대의 이야기를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하는 金동문에게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고 균형과 진리가 살아있는 사회가 그려졌다.

“올 한해 SNCC는 기틀을 다지고 사이람과 함께 다가오는 선거 때도 열심히 펼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위치해 있는 연구공원 본관 사무실 임대계약이 만료가 돼서 고민이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SNCC와 사이람의 산학협력 특성상 사이람도 학교에서도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교와 동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金동문은 모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가족 중 부친 金正銀(경제52-56)前오라관광 대표, 형 金聖勳(경제78-82)삼성SDS 부사장, 여동생 金媛卿(기약83-87)수원여대 교수가 동문이다. 부인과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榮)



영하 -40°C

그 혹독한 기후를 이겨내다

최고의 품질로 만든 최상의 GOOSEDOWN

고기능성의 탁월한 보온력 최상의 GOOSEDOWN 자켓



알파인 KIO8043M/W Color : (Man) Black / (Woman) Red, SIZE : (MAN) 95(L)~110(3XL) / (WOMAN) 90(M)~105(2XL)



SUPPLEX

미국 듀폰사의 나일론의 첨단 기능을 가지며 면과 같은 촉감을 가진 섬유. 면처럼 부드러운 피부에 직접 닿아도 촉감이 좋음. 유연하고 가벼워 활동이 자유로우며 통기성이 좋음. 마찰에 강하여 구멍이 나거나 찢어짐이 적음. 강한 햇볕에 노출 또는 세탁후에도 색상의 변화가 적음. 물세탁에 대한 견뢰도가 좋아 이염 및 물빠짐이 적음. 구김이 적으며 오염에 강함. 손질이 간편하고 기계세탁이 가능하여 세탁후에도 모양이 변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적음.



SUPER LIGHT FRONTTEX

가벼운 경량감과 차단성이 우수한 초경량 소재. 차단성이 우수하며, 일반 직물보다 빨리 마르는 속건성 등을 가지고 있음. 가벼운 중량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바람막이 자켓 및 다운 자켓으로의 활용이 우수한 초경량 소재임. 깃털이 빠지는 걸 막아주고 습기는 밖으로 배출해 쾌적함을 유지시켜줌.



【주】콜핑 본사 T.055)363-3714 / 서울지사 T.02)3158-4121

www.kolping.co.kr



우리금융그룹



The Banker 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2년 연속 수상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No1. 우리은행!

고객님께서 만들어주신 상이기에
더 값지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객님과 함께하는
우리은행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은행



The Banker지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발간하는 권위 있는 금융 전문지로 전세계 150여 개국에서 구독하고 있으며 금융 업계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건고한 실적의 지속 및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역량을 종합해 국가별로 1개 은행을 선정해 '올해의 최우수 은행 (Bank of the Year)'으로 시상하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며 한·중 FTA 신중히 추진”

동문을 찾아서

외교통상부 朴泰鎬 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朴泰鎬(경제71-75)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지난 1월 31일, 서울에는 폭설이 내렸다. 처음부터 기세 좋게 시작한 눈은 인터뷰 내내 창 밖을 하얗게 덮으며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생각나게 했다. 풍년을 예고하는 대설은 ‘포근하면 서도 매섭다’는 평판을 가진 차동문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대변하는 듯 했다.

‘검투사’로 불리는 전임 金宗樸본부장의 비통을 넘겨받은 차동문은 지난 1989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총괄 및 서비스협상 자문위원직을 지낼 때부터 학자뿐만 아니라 실무에 능한 협상가로 유명했다. 학문·행정·교육·연구 등 ‘만능 국제통상 전문가’로 평판이 자자한 차본부장은 취임 초 살인적인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모교와 동창회와의 인연이 깊다”며 “항상 林光洙회장이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렵게 시간을 내주었다.

대답 : 蔡耕玉(매일경제신문 뉴스속보부장)논설위원

—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다녀오셨죠.

“예전부터 가고 싶은 회의였는데 비싸서 못 갔었죠. (웃음) 하지만 전에는 학자로 회의를 세팅하는 일을 했었어요. 다보스포럼을 위한 ‘Global Agenda Council’이라고 해서 저는 무역 분야 의제를 담당했었죠. 회의도 하고 토론회도 갖고 전화 콘퍼런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진 주제를 연구해서 올리면 다보스포럼에 속한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만들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 미국 무역대표부 사람을 만나 쓴소리도 하셨다고 하는데.

“다보스포럼에는 스위스 통상장관이 20개 국가 통상장관들을 초청하는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미국 무역대표부 론 커크 대표를 만나서 미국 가전회사가 한국산 냉장고에 이어 세탁기에도 반덤핑 제소를 한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죠. 이 회의는 토론도 중요하지만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적 네트워크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는 못하고 양자 통상장관 회의만 하다 바로 돌아왔습니다. 좀 아쉽네요.”

— 스케줄이 빡빡하셨네요. 혹시 李明博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요.

“특별한 인연보다도李大統領께서 서울 시장이실 때 제가 시정자문위원회 멤버였어요. 그래서 해외가실 때 조언도 해드리고 그랬었죠.”

— 그렇게 교수님으로 잠깐씩 자문만 하실 때와 지금 본부장 자리는 어떠세요. 무게감이 다르실 것 같은데.

“통상 분야는 미국 대학원 시절부터 계속 공부했죠. 그 다음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 있다가 1989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정식은 아니지만 직접 활동을 했어요. 그때 계속되는 협상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타서 허리병도 나고 그랬어요.

그 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생기면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서울대에 국제대학원이 생겨서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경험이나 경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주어진 통상 분야는 익숙합니다. 제 전공이니까요. 그런데 이 통상교섭이 정치화되기도 하고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국회도 자주 드나들면서 보고하고 정부와의 관계나 협상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관계로

너무 얹혀있으니 외부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부담감이 아주 많아요.”

— 신문에 안 나오는 내용이 많죠.

“저도 밖에서 볼 때는 비판하면서 정부 잘못이라고 그랬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통상 분야가 이론과 지식으로 알아도 현실적인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게감도 커지고 책임감도 강해지고... 그나마 제가 학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서 관련자들과 국민들에게 이 분야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대화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 최대 현안인 한·미 FTA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 임기중 현안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한·미 FTA 문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한·중 FTA, 기존 FTA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 등 이렇게

충분한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소통하는 한·중 FTA를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 그렇다면 세 번째 과제인 기존 FTA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즉 북유럽에 속한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의 FTA와 관련해서 불만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EU와 같은 유럽 국가인데 ‘우리는 왜 치즈 관세가 25%나 되냐’ 이러는 거죠. FTA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갈 생각입니다. 국가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글로벌 코리아’로서 FTA 후속 작업을 해야 하죠.”

— 아직 한·미 FTA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게 사실인데 이에 대해 동문들에게 어떤 부분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주신다면.

무역은 물론 투자유치가 주요 전략

기존 FTA 문제점 보완도 남은 과제

세 가지 정도를 속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한·중 FTA는 2005년부터 민간연구와 정부공동연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미 EU와 미국 등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상을 개시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측의 압박이나 요구도 심한 편입니다. 더 이상 모른체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중국과 협약이 체결되면 많은 나라가 중국시장을 보고 일본보다 가능성이 큰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허브국가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한·중 FTA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아직 민감한 품목들의 구체적인 협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농수산물 같은 초민감 품목은 최대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상품을 먼저 개방하고 서비스나 투자개방은 나중에 하자는 중국식의 단계적 협상도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국민과 대화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정부 관료들을 만나서

“만일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과 FTA를 안 했는데 중국과 협상을 한다면 저도 반대입니다. 전략상 미국과 먼저 FTA를 맺은 것이 중요한 점은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시장 규모가 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盧武鉉 前대통령이 한·미 FTA를 시작했을 당시 우리 교역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25%에서 10% 미만으로 하락세였거든요. 미국 시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사는데 미국 사회에서 가져오는 첨단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자유무역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죠. 盧 前대통령이 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고 전략을 세워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니까 오히려 유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협상은 미국과 먼저 했는데 한·EU FTA가 미국보다 더 빨리 체결됐어요. 선진국에서 보면 아시아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시장인데 미국과 한 다니까 유럽에서 급하게 제안이 들어온 것이죠.

이제 이런 전략상 중국과 FTA가 되면

· 朴通상교섭본부장은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고를 졸업했다. 모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타운대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한국개발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과 부원장을 역임했다. 1997년 모교 부임 후 국제지역원장, 국제대학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됐다.

朴通상교섭본부장은 ‘통상전문가’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해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도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중국의 넓은 시장을 바라보면서 기존에 협약을 체결한 선진국들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고용시장이 활성화돼 지금 청년실업 같은 문제가 해결되죠.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미국과 FTA를 먼저 한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탁월한 盧 前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취약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거래 후에 분명히 취약해서 손해가 가는 쪽이 있죠. 하지만 그 피해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무역이론이에요. 그 당시 적응하기 어려운 기업이나 산업은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실 1월에 22억 달러 무역적자가 나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隔世之感이라고 할까요. 20년 전만 해도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본 시장은 대지진 사건 이후 사회가 활력을 잃어서 활기찬 우리와 중국과 비교했을 때 왕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도 일본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대기업만 돈을 벌고 중소기업은 더 위축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미 FTA 활용해 중소기업 내실 다지길…”

☑ 생각하세요.

“그러한 우려는 매우 정당합니다. 지금 정부의 상생법, 유통법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보호입니다. 일단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면 고용시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들이 정당하게 거둬서 이길 수 있는 공정한 룰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에 있는 중소기업은 세계적으로 넘버 원이고 해당 업종에서는 그 회사 부품이 없으면 완제품을 아예 못만들 정도로 유명하지만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로고가 붙어 있어서 알지만 그 속에 작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까진 알지 못하잖아요. 완제품은 기술과 자본이 있으면 어느 기업이나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부품은 그 회사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지도는 낮지만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중소기업을 글로벌 서플라이어(Global Supplier)라고 부르는데 그런 회사를 많이 키워주는 환경이 필요한 것이지요.”

—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학연·혈연 다 떠나서 검증된 기술력만 가지고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몇 천억원씩 기부하는 것보다 미래가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말이죠. 기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을 키워주고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첨단기술을 많이 개발하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미 FTA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잘 활용해서 글로벌 서플라이어 수준의 기업이 많아지고 내실이 튼튼해졌으면 합니다.”

— 막상 대기업과 거래해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협력업체들 위에 군림하고 쥐어짜고 그러죠. 재벌 2, 3세대들이 창의적인 업종보다 손쉽게 가로채기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업종으로 진출하는 것도 큰 문제고요.

“그래서 불공평하고 올바르지 않은 사회 현상이 많이 있죠. 우리 대기업이 규제가 많은 농업도 도와주고 산학협력 같은 R&D도 많이 해서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 이상주의자(Idealist) 같으세요. (웃음)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용시장불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의하시는 것처럼 젊은 청년이나 후속 세대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요즘 대기업에 가면 처음에는 연수시켜주고 밋을 내서 회사 홍보만 하고 화려한 세상을 보게 하다가 막상 현장에 가서 실망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조직에 들어갔더니 심부름이나 시키고 목소리를 못 내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또 3~4년 해야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회사를 박차고 나옵니다. 요즘 애들은 못 견뎌요. 어른들은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하지만 그건 옛날 스타일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사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휴먼캐피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비전이 없



실력 고루 갖춘 ‘만능통상전문가’

KIEP 부원장·국제대학원장 지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으면 입사해도 금방 나오되고 또 이들이 재취업이 안 되면 사회의 불만세력으로 남아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시각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큰 은행이나 대기업만 고집해서 입사한다고 재수하고 이리저리 안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외국이라도 직접 가서 인턴을 하든, 노동 일을 하든 몸으로 부딪혀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이거죠.”

— 많이 보는 게 사실은 힘이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꿈’이란 프로그램에 소개된 진보성향의 한 여성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미혼인데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해외봉사를 갔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한국에 대한 고마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큰 스펙임니까? 다른 수치로 따지는 스펙보다 진취적으로 꿈을 갖고 직접 부딪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 요즘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늘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심각하죠. 고령화가 빠르게 오는데 출산율도 제일 낮아서 고령자들을 서포트하고 지지하는 베이스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고령화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도 은퇴 후를 고민하면서 기부나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꼭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나 마음으로 배운 지식을 나누는 삶에 대해서 생각했죠.”

— 직장을 오래 못 다니니까 결국 직장을 다니면서도 교육비용을 많이 쓰고 자녀들에게도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이 교육비에 대한 매물 비용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한 공포심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는 정규직으로 오래 일하는 게 불가능하죠. 아직 연금제도나 보장제도도 잘 안 돼 있죠.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나 금전적인 부분의 법규가 많이 바뀌면서 점점 더 나아질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도 나이가 있어도 건강하니까 개인적으로 은퇴 후에 제주도나 다른 나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와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제가 공부한

시고 일찍 퇴임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KDI에 꼭 가고 싶었거든요. 넓은 연구실도 주고 비서도 있고 그렇게 좋아보이더라고요. 그 꿈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죠. 다행히 TA(보조교사)로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 도움은 거의 못 받았죠. TA 활동을 하면 돈을 주니까 가능했어요. 운이 좋았죠.”

— 운이 좋은 이유는 본부장님이 그때그때 선택을 잘 하신 거죠.

“운 하나만 생각이면 나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서울대에서 李基俊(화학공학57-61) 총장님 시절에 대외교류처장을 했어요. 당시 저는 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보직교수를 맡는 게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李基俊총장님이 학교 일을 몰라야 할 수 있다면서 적극 추천해주셔서 열심히 했어요. 그 일이 서울대 외교관 같은 일인데 맡고 보니 정말 총장님 말씀대로 그 업무가 정말 재밌었죠.

소위 李基俊총장님 팀이라고 할까, 당시 鄭正佶(행정61-65)대학원장, 柳佑益(지리67-71)교무처장, 朴晉錫(경영71-75)기획실장이 함께 했었는데 지금까지 만나곤 합니다. 우연히 그때 학교 행정 업무를 하면서 그분들 덕분에 국제대학원 건물도 짓고 교수도 많이 뽑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패도 드렸었죠. 그리고 그때 林光洙회장이 총동창회장이 되시면서 더 자주 모일 수 있게 행사나 모임도 많이 만드셨어요.”

— 모교 교수님이시니까 서울대 법인회는 어떻게 보시나요.

“법인회는 제가 국제대학원장을 할 때 李長茂총장님과 만나서 많이 논의했죠. 그래서 추진이 됐는데 그 법안이 국회에서 한번의 토의도 없이 통과가 돼서 그 속에 숨어있던 이슈가 공론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개방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개방된 후나 법인화가 된 후에 좋은 점은 당장 눈에 안 보여요. 대신 손해보는 피해는 외부에 와 닿거든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다든가, 등록금 문제, 기초학문에 피해가 간다 등 이런 부분들이 저도 그랬고 학교에서도 많이 논쟁이 돼서 검토를 한 내용이었거든요.”

— 있는 것을 뺏기는 기분이 들죠.

“현재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잘하시는 지금 吳然天총장님의 리더십이 더 돋보일 수 있죠. 조금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李長茂총장님이나 吳然天총장님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소화하시려면 건강이 필수인데 끝으로 동문들에게 건강비법을 소개해주신다면.

“제가 성격이 좀 낙천적입니다. 고민은 많은 편이지만 안 좋은 기억은 잘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요. 평소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공원으로 산책하고 걷는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꿈도 못 꾸고 있죠. 잠시 다른 운동법을 찾아야겠죠.”

(사진=玄智愛기자·정리=邊榮顯기자)

3기 글로벌봉사단 출범

8개 봉사팀 5개국에 나눔 실천

모교 소식

모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제3기 글로벌봉사단이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1월 19일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320호에서 발

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吳然天총장을 비롯해 모교 보직교수 및 봉사단원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출범한 봉사단은 8개팀으로 나뉘어 1·2월 동안 필리핀과 인도, 방글라데시 등 5개국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



천할 예정이다.

이번 3기에는 가장 많은 재학생이 참여했으며, 교육·건축·의료 활동뿐만 아니라 태양발전 시스템

설치, 빗물이용설치, 가축 질병진단 등 봉사 분야가 다양해졌다.

글로벌봉사단은 재학생들의 해외봉사활동과 폭넓은 국제사회 경

험을 통해 사회와의 소통, 나눔과 배려의 전인적인 덕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해 1월에 발족했다.

발전기금 부이사장에

李昌雨교수 임명

지난 1월 11일 모교 발전기금 부이사장에 경영학과 李昌雨(경영74-78)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부이사장은 1954년생으로 1982년 美 일리노이대에서 석사학위, 1987년 美 UC버클리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대 교수를 거쳐 1992년 모교에 부임한 부이사장은 모교 학생부처장, 경영대 교무부처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李昌雨부이사장



姜大熙학장

의과대학 학장에

姜大熙교수 임명

지난 12월 30일 모교 의과대학 학장에 예방의학교실 姜大熙(의학81-87)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학장은 1962년생으로 1990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1994년 美 존스홉킨스대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요원을 거쳐 1996년 모교에 부임한 학장은 모교 연구부처장, 의대 연구부처장, 미국국립암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지냈다.

모교 '수목진단센터' 개원

나무 병해충 조사·치료 연구

모교는 지난 1월 12일 서울시·산림청과 공동으로 모교 식물병원에서 '수목진단센터' 개원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개원한 '수목진단센터'는 수목에 발생하는 피해를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산림청과 서울특별시 지정 기관이다.

현판식에는 모교 吳然天총장을 비롯해 李敦求(임학65-69)산림청장, 諸連鎬(천연섬유86-90 모교 농생대 교수)센터장 등이 참석

했다. 센터에서는 서울시 권역별 수목 병충해 조사와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도시숲과 녹지에 생육하는 수목의 병해충 실태를 파악하고 수목을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또 수목의 건강관리에 관한 민원 상담과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과학적인 수목 건강진단 체계를 확립하고 우리 생활에 관련된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수목의 전염병의 실태를 위해 수목 건강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모교 병원·SK텔레콤

'헬스케어' 회사 출범

모교 병원(원장 丁嘉原)은 SK텔레콤(대표 河成旼 AFP 4기)과 공동으로 지난 1월 17일 서울 광장동 위커힐호텔 코스모스에서 자산규모 2백억원의 주식회사인 '헬스케어' 출범식을 가졌다.

'헬스케어'는 모교 병원의 '헬스'(의료 기술)와 SK텔레콤의 '커넥트'(통신을 포함한 ICT기술과 운영 노하우)의 융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사의 초대 대표에는 서울시립보라매병원 李哲熙(의학78졸)원장이 임명됐으며, SK텔레콤 헬스케어사업 陸泰璇(산업공학84-90) 본부장은 최고개발책임자(CDO)를 겸임해 모교 병원 의료기술의 노하우와 콘텐츠를 융합한 미래형 혁신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목표는 ▲모바일 기반의 자가 및 일상 건강관리 모델 서비스 개발 ▲ICT기반의 디지털병원

해외진출 ▲한국 헬스케어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 연구개발 체계 구축 등 3가지 분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교 병원 연구팀

'임신성 당뇨' 변이 규명

모교 병원 내분비내과 朴慶秀(의학78-84)·곽수현(의학98-02)교수와 분당 모교 병원 내분비내과 張學哲(의학77-83)·崔誠希교수 연구팀이 임신성 당뇨병의 유전자 변이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기간 중 처음으로 진단된 당뇨병으로 산모의 아이는 4kg 이상의 거대아로 태어날 확률이 높아 출산시 제왕절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또 임신성 당뇨병 여성 중 절반은 출산 후 10년 안에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임신성 당뇨병의 유전적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해 향후 임신성 당뇨병의 발병 기전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榮)



2011 한국농림식품산업진흥 선정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8년 연속 1위



더
삼천리에게 원하세요!



삼천리처럼 따뜻한 마음까지
선물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삼천리, 힘을 내요!
우리는 더 원하니까요!



깨끗한 자연, 맑은 물, 맛있는 생활.

친환경 생활문화기업 삼천리가 만들어 갑니다!

일성화학 鄭潤煥대표

모교 발전기금 10억원 쾌척

지난 1월 24일 일성화학 鄭潤煥(임학56-62 본회 부회장)대표가 모교 발전기금에 '일성장학기금'으로 10억원을 쾌척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鄭대표는 2003년부터 모교 발전을 위해 본회 장학발당 기금 1억원 출연했으며, 꾸준히 학술기금과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에 鄭대표가 기부한 금액은 모교 농생대 장학기금과 모교 그린 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지원기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鄭대표는 "기업 이익의 30%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력이 된다면 더 낮은 곳을 돌아보며 사



모교 吳然天총장·鄭潤煥대표

회를 보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는 기부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鄭대표는 화학약품의 국산화를 목적으로 1978년 은성화학공업사를 설립해 국내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2008년 3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다.

농생대 崔銑哉교수

아들 결혼 축의금 전액 기부

지난 1월 12일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崔銑哉(축



산73-80)교수(사진)가 아들의 결혼 축의금 전액인 7천만원을 'SNU 희망장학금'으로 기부했다.

발전기금은 崔교수의 뜻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재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에도 교수 재직 20

주년을 맞아 1억원을 모교에 기부한 바 있는 崔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아들의 동의를 얻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崔교수는 1983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미국 노스다코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모교에 부임해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과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농촌진흥청 녹색기술자문단 자문위원, 모교 평창 그린바이오 추진 사업단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朴婉緒동문 13억 기금
인문학 연구자에 지원

지난해 별세한 소설가 朴婉緒(국문50입)동문의 유족이 모교에 학술기금으로 기부한 유산 13억원이 젊은 후대 인문학 연구자들을 위해 사용된다.

지난 1월 20일 모교 인문대(학장 邊昌九)는 朴婉緒동문이 남긴 사재로 조성된 기금을 인문학 분야 박사 후 연구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문대는 인문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 가운데 매년 1명을 학위논문과 연구계획서 등을 토대로 '朴婉緒 기금 연구 펠로우'로 선발해 2년간 월 2백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위 논문 마무리 단계인 박

사과정 학생을 매년 1명씩 장학생으로 선정해 1년간 월 1백만원씩 지급한다.

朴동문은 1950년 모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지만 한국전쟁으로 중퇴했다. 2006년 문화예술인으로는 처음으로 모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술관

‘교과서 속 우리 미술’展

미술관은 지난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아 '교과서 속 우리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현재 초·중등 미술 교과서의 '감상' 영역에 수록된 한국 작품을 중심으로 동양화를 비롯해 서양화·조소·판화 등 미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33명의 작가 작품 51점을 소개했다. (榮)

제학생의 소리



“진정한 소통의 힘을 배웁니다”

서울대학교 최초의, 유일의, 최고의 말하기 동아리인 '다담'의 13대 회장 인사드립니다. 선배님들께서는 학교 발표 수업 때, 긴장하시거나 떨리셨던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한 떨림을 가지고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다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모교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담'은 말하기 동아리로서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토론할 때 필요한 스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가슴으로 통하는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매주 있는 세션에서 실제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는 매주 한 번씩 모여 세션을 진행합니다. 세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스피치 세션에는 그 자리에서 즉

석으로 스피치를 하는 즉석 스피치에서부터 5분간의 연설을 준비해 말하는 5분 스피치 등이 있습니다. ▲토론 세션에는 2인1조로 조를 나눠 형식을 갖춰 정책을 토론하는 의회식 토론과 세다(CEDA) 토론이 있으며, 책을



선정해 저자의 생각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독서 토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세션에는 연극이나 영화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문화 세션과 지하철에서 스피치를 연습하는 지하철 세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션을 바탕으로 소통의 힘을 기르고 MT나 소모임 같은 세션 프로그램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

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의 전체적인 동아리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서, 저희 동아리도 학교에서 받는 지원으로는 세션을 운영하기에 부족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회원들의 회비로 각종 비용을 충당하고 있지만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金 日 煥(재료공학09입)

말하기 동아리 '다담' 회장

에서 동아리에 지원해주는 전체적인 지원규모가 커진다면, 저희 동아리와 같이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아리들이 재정에 관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배님들께서 재학생들과 동아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2011 환경소비자대상’
타이어부문 엔블루 에코 선정

넥센타이어
www.nexentire.com

지구는 계속 지켜져야 하니까-
Eco를 포기할 수 없었다

자동차는 계속 달려야 하니까-
Performance를 포기할 수 없었다

**친환경을 넘어
에코 퍼포먼스로 완성되다**

환경을 지키면서 드라이빙 능력까지 좋게할 수 없을까?
이 모순된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와 노력이
Nblue eco의 Eco Performance로 완성되었습니다.
회전저항을 줄여 CO₂배출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주행능력은 더욱 향상시킨 놀라운 기술!
선택은 언제나 Nblue eco입니다.

2011 Green Consumer Award
타이어부문 우수 소비자 인증

2011 Design Awards
타이어부문 우수 디자인 인증

2011 Eco Performance
타이어부문 우수 인증

2011 Nexentire
타이어부문 우수 인증

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평생 챙겨주는 친구처럼

언제나 나를 위해주던 친구처럼
잊고 계신 보험혜택 챙겨드리러
교보생명 재무설계사가
한 분 한 분 평생 찾아뵙겠습니다



- ▶보험혜택 잊고 계신건 아닌지 현재 고객님의 가입하신 보험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 ▶놓친 보험금을 모르고 계시진 않은지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청구해 드립니다
 - ▶그 동안 달라진 변화는 없으신지 이사, 번호변경으로 달라진 정보를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 ▶부족하신 보장은 없으신지 원하실 경우 현재 상품의 보장내역을 분석하고 부족한 보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평생든든서비스로 찾아 뵈실 수 있도록 바뀐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콜센터 : 1588-1001



콩트 릴레이

‘중국 삼국지’와 우리나라 삼국시대

林 東 主(수의학74-78)

도서출판 마야 대표



작년 연말에 전철을 탄 적이 있었다. 옆 자리에 초등학교 5학년쯤 되어 보이는 애들이 여럿이 ‘중국 삼국지’ 얘기를 한창하고 있었다.

“방통이 제일 나은 거야. 조조의 군함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었으니까.”

그러자 그 옆 애가 하는 소리.

“아니야. 그래도 제갈공명이 하늘을 움직여 남풍을 일으켰기에 화전을 써서 위군을 박살낸거지.”

‘낙봉과’ 운운 그들이 하는 얘기는 끝도 없었다. ‘중국 삼국지’를 완전히 꿰고 있는 듯 했다. 내가 끼어들었다.

“너희들 중국의 삼국지를 거의 외다시피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자들은 외국(중국)의 것만 인용한다며 개탄해 마지않았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모르면서 어찌 민족의 오늘과 내일을 논할 수 있겠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소위 지식인이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역사는 잘 모르면서 중국 삼국지는 자랑스럽게 회자된다는 거다. 특히 이런 이들은 우리나라를 스스로 비하하기 일쑤다.

한국의 유명 작가들조차 돈이 된다해 앞다투어 ‘중국 삼국지’를 윤색해 출간하고 있다. 게임을 만드는 이 또한 그러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569년 선조는 신하들에게 이 책에 나오는 장

켜세웠던 공명이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좌원대첩을 승리로 이끈 고구려 국상 명립 담부와 비교라도 할 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 결국 떠돌이 무사 집단과 다름이 없다.

나관중은 존화주의에 바탕을 두고 책을 만들었기에 ‘중국 삼국지’를 읽다보면 절로 모화사상과 사대주의에 젖게 된다. 즉 중국 중심의 세계에 익숙해지고 우리는 변방이라는 자기 비하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위, 오, 촉의 삼국시대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와 동시대에 존재했다. 후한 말 태평도의 붕기가 있었던 서기 184년부터 시원을 잡더라도, 중요 사건은 200년 조조와 원소의 관도대전, 208년 조조와 손권의 군대가 맞붙은 적벽대전, 촉의 건국의 발단이 된 219년 한중전투, 그리고 촉나라가 약화된 계기가 됐던 222년 이릉전투까지의 20년 사이에 일어나며, 263년 촉의 멸망과 265년 위의 멸망, 280년 오나라의 멸망까지 계산에 넣더라도 100년이 채 안 되는 보잘 것 없는 역사인 것이다. 그 당시 신라는 벌휴, 내해, 조분, 점해, 미추 이사금이 다 스렸다. 석우로 등이 활약했던, 석씨 세력의 전성기였지만 곧이어 김씨가 등장한다.

백제는 초고왕과 구수왕, 사반왕과 고이왕의 시대였다. 고이왕 시기 백제는 나라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을 시작하

고 있었다. 고구려는 고국천왕과 산상왕, 동천왕과 중천왕, 서천왕 시기다. 이때 고국천왕이 을과소를 등용해 독자적인 진대법을 실시했고, 동천왕은 동양에서는 최초로 철기군을 조직해 위나라 관구검과 격돌했다.

또 중천왕은 재차 침입한 위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는 위, 오, 촉 삼국시대에 비해 소재가 부족하지

도 않고, 재미와 교훈이 모자라지도 않는다. 삼국시대는 우리 역사를 통틀어 민족 지혜의 보고인 것이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인물들과 만나다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과 백성들을 진실로 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영토만을 크게 넓힌 인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의 정식 명칭은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다. 이 말을 풀여보자면 ‘국강상 지역의 무덤에 계시는, 크게 영토를 개척하시고 나라와 백성을 평안하게 해주신 참 사랑스러우신 큰 임금’이란 의미다. 즉 광개토대왕은 싸움만 잘하는 냉혈한 정복군주가 아니었다. 광개토대왕릉비문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 분의 은혜와 혜택은 하늘에 가득 차고, 위엄과 무공은 온 세상을 가득 덮었다. 옳지 못한 자들을 없애 치우고, 백성들의 생업을 편안하게 하니 나라는 부유하고 백성은 넉넉하며 오곡이 풍요롭게 무르익었다.”

이 얼마나 멋진 문장인가. 이러한 백성들

의 칭찬을 들은 인물이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다. 단지 사람들이 광개토대왕비 396년 신묘년조 해석에만 매달려 그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광개토대왕과 세계적인 영웅이라 칭하는 알렉산더 대왕을 비교해보자. 알렉산더는 냉정히 말해 살인광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고, 배다른 형제를 독을 먹여 바보로 만든 잔혹한 어머니 올림피아스 왕후에 대한 콤플렉스로 인해 그리스를 떠나 세계를 떠돌며 잔인한 살인 행각을 벌인 인물이었다. 다만 그의 사후에 동서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등 좋은 결과가 나왔을 뿐이다. 이와 같은 알렉산더에 비한다면 광개토대왕은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할 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보다 독일 구텐베르크의 그것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이 무구정광다라니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계 최고로 인쇄 문화를 발달시킨 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가 훌륭하다고 자랑만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왜 우리 역사가 인정을 덜 받고 있는지를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알렉산더를 모르는 세계 지성인은 거의 없겠지만, 광개토대왕을 아는 세계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신라의 거칠부나 이사부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는 관우나 장비가 ‘삼국지’로 포장됐기에 만고의 영웅으로 부상한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중국 삼국지’를 소스로 한 게임을 즐기며, ‘중국 삼국지’ 만화를 보고, 소설 ‘중국 삼국지’를 읽고 논술 준비를 하며 대학에 들어간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역사는 제대로 배워 보지도 못하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제 나라 뿌리도 모르는 한심한 현실에서 과연 애국심이 생기겠으며 ‘동북 공정’과 같은 중국의 역사 침탈을 제대로 막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본다. 수능시험이나 대입 논술시험에서 중국 제갈량의 출사표 대신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사건을 지문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나라에 끌려가서도 죽음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신라 쇄뇌의 기술을 지킨 구진천의 이야기 등이다. 만약 입시 논술에서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삼국시대 역사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증대될 것이다.

역사 지키기는 역사가들만의 몫이 아니다. 역사소설가의 몫도 있지만 정부와 시민 등 문화산업 전체의 몫도 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도 잃고, 우리의 존재 가치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 우리는 자리를 박차고 나서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우리가 역사 지키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의 보고인 삼국시대를 토대로 한 문화콘텐츠를 적극 개발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삼국시대를 소재로 한 게임을 즐기며, 우리나라 삼국시대 만화를 보고, 우리나라 삼국시대 소설을 읽으며 문학적 소양을 늘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역사를 전공 혹은 부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도 정체성을 찾을 것 아닌가.

“

펄펄뛰는 잉어를 수초에 싸서 적진에 보내
한군을 물리친 대무신왕의 지략이
제갈량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임진강을 위협해 백제 군사를 북으로
빼돌리게 하고 텅 비어있는
한성으로 진주해 백제 아신왕을
무릎 꿇린 광개토대왕의 지략 또한
당태종을 뛰어넘고 있다.

”

하는데 당시 고국천왕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답변인즉슨 “고국천왕은 위, 오, 촉 중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삼국지 하면 대개 중국의 위, 오, 촉을 떠올린다. 우리나라 삼국, 즉 고구려, 백제, 신라를 떠올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심지어는 유네, 조조, 관우를 우리의 역사적 인물인양 달달 외운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유리왕을 도와 선비족을 물리친 고구려의 장수 부분노나 진대법을 실시한 을과소와 같은 위인이 수도룩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펄펄뛰는 잉어를 수초에 싸서 적진에 보내 한군을 물리친 대무신왕의 지략이 제갈량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임진강을 위협해 백제 군사를 북으로 빼돌리게 하고 텅 비어있는 한성으로 진주해 백제 아신왕을 무릎 꿇린 광개토대왕의 지략 또한 당태종을 뛰어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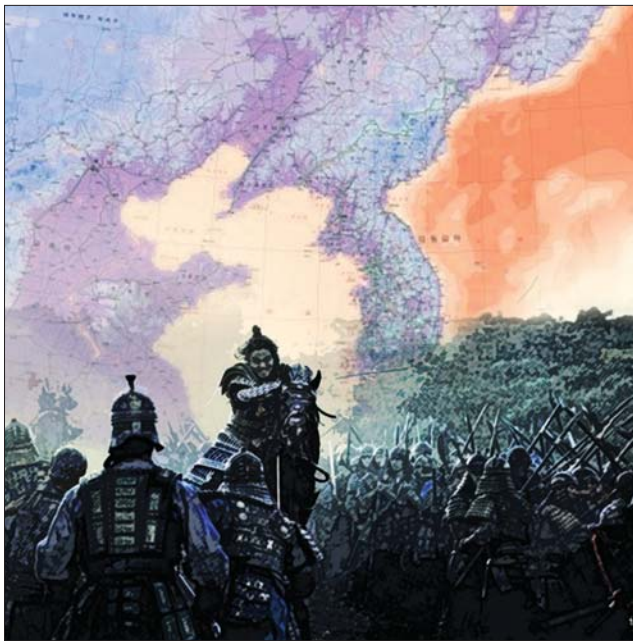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도 인종에게 올리는 표에서 우리나라에도 춘추시대를 능가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훌륭한 역사

비의 장관교 사건이 왜 정사에는 기록돼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기대승이 선조에 아뢴 말이 조선왕조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돼있다.

“삼국지연의’는 무뢰한 자가 잡된 말을 모아 진짜 옛 이야기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잡되고 경박하고 무익할 뿐 아니라 크게 의리를 해칩니다. **—중략—** 임금님께 서는 이 책의 무명함을 아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삼국지’에 대한 비판적인 문구를 소개한 이유는 과연 이 소설이 우리에게 재미 이외에 무엇을 주었는가 하는 것이다. 옛날 어른들은 젊은 날에 ‘수호지’를 읽지 말고 늙어서는 ‘중국 삼국지’를 읽지 말라고 했다. 젊은이가 남의 재물과 목숨을 빼앗는 도적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광복해지고 늙은이가 남을 속이는 계략이 많은 책을 읽으면 잔머리만 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겉으로는 의리와 충절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권력다툼과 잔혹한 살육이 난무하는 시정잡배들의 이야기일뿐이다. 나관중이 소설에서 그렇게 치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07)

NCSI



채워야 할 별이 아직 많습니다

푸르덴셜생명이 **2011 고객만족도(NCSI)**
생명보험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벌써 **8개의 별**을 가슴에 달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채워야 할 별이 수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철학과 원칙에 동의하고 만족해 주신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더 노력하는 푸르덴셜생명이 되겠습니다



국가고객만족도(NCSI)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시간대학이 공동개발한 지수로서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의 직접 평가로
이루어지는, 고객만족도 조사 중 가장 신뢰할만한 조사입니다



Prudential



캐슬, 그 이름 하나로 방배, 예술이 되다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지금까지의 방배는 잊으십시오
방배동의 품격을 드높인 걸작이 다가옵니다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
그 이름만으로도 빛나는, 진짜 방배를 만나십시오



LOTTE CASTLE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59 / 84 / 121 / 147 / 216㎡

총 744세대 중
일반분양 367세대
1588-0400



북한산 아래에서 만나는 강북의 명예!
평창동 롯데캐슬 로잔

184 · 190 · 191 · 200 · 215 · 219 · 225
238 · 239 · 244㎡ 총 112세대
분양 문의 **02)794-2266**

※ 공급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27-1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11개동 총 7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되며,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의거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제작용도에 사용된 투시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제작용도는 편집 및 인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계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평 대신 제곱미터(㎡)를 씁니다. ※ 시행 : 방배2-6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시공 : 롯데건설(주)

동 정

수 상

▲申秀貞(기악59-63 모교 음대 초빙 교수·대한민국예술원 회원)=지난 12월 30일 독일 음악을 한국에 널리 알린 공로로 독일 십자공로훈장 수훈.

▲崔完秀(사학61-65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연구실장)=지난 1월 19일 제10회 -민문화상 수상.

▲朴哲彦(법학61-65 前체육청소년부 장관·시인)=지난 12월 26일 월간 순수문학사가 주관한 제19회 순수문학상 대상 수상.

▲柳岸津(교육61-65 모교 소비자 아동학부 명예교수)=오는 3월 24일 시집 '동근세모꼴'로 제44회 한국시인협회상 수상.

▲李信和(기악61-66 김천예고 교장)=지난 1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음악협회로부터 한국음악상 수상.

▲盧承卓(기계공학62-66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지난 1월 30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수여하는 제8회 일진상 수상.

▲李龜澤(금속공학64-69 포스코 고문)=지난 1월 12일 경기고 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수상.

▲吳世鍾(성악66-75 서울시합창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지난 1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음악협회로부터 한국음악상 수상.

▲李振洙(의학68-74 국립암센터 원장)=지난 1월 12일 경기고 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수상.

▲鄭斗彦(무역76-80 국회의원)=지난 1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음악협회로부터 한국음악상(특별상) 수상.

▲黃希哲(법학77-81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지난 1월 10일 미국 미시간대 한국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

▲李昇勳(경영79-83 대불대 총장)=지난 1월 10일 미국 미시간대 한국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

▲金振漢(보대원87-90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지난 1월 11일 국민대총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국민의 상 수상.

▲朴吉培(공법88-94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지난 12월 21일 매경미디어그룹·대검찰청이 수여하는 제1회 매경 경제검사상 수상.

▲田盛元(사법90-95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지난 12월 21일 매경미디어그룹·대검찰청이 수여하는 제1회 매경 경제검사상 수상.

▲지중배(작곡01-08 지휘자)=최근 독일음악협회 주최로 라이프치히 오페라극장에서 열린 제4회 독일 오페레타 지휘자 경연대회에서 1위 차지.

▲盧基太(AMP 27기 부산항만공사 사장)=지난 1월 13일 동명목재 故 姜錫鎭 회장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4회 동명대상(공부문) 수상.

▲姜榮中(AMP 28기 대교그룹 회장·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지난 1월 8일 일본보이스카우트연맹이 수여하는 최고 공로상인 '키지상' 수상.

▲趙亮鎬(AMP 29기 한진그룹 회장)=지난 1월 17일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으로부터 '한국 이미지 디딤돌상' 수상.

▲朴舜浩(AMP 43기 세정그룹 회장)=지난 1월 13일 동명목재 故 姜錫鎭 회장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4회 동명대상 수상.

▲韓聖烈(ACAD 67기 대한불교조계종 해통사 주지)=최근 법무부 교정본부 수원구치소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柳相浩(GLP 11기 한국투자증권 사장)=지난 1월 17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제14회 매일경제 증권인상 대상 수상.

▲睦堯相(법학55-61 前국회의원·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지난 1월 10일 대한민국헌정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趙昌化(정치57-62 前대한언론인회 회장)=지난 1월 16일 공익광고협회의 전제회의에서 회장에 재선출.

▲李台燮(화학공학62졸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사장)=지난 1월 4일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이사장, 종묘제례보존회 회장, 이화장학회 이사장에 취임.

▲權 誠(법학60-66 언론중재위원장)=지난 1월 6일 출범한 언론중재위원회 사회공헌단 단장에 선임.

▲金明子(화학62-66 前환경부장관·분회 부회장)=지난 1월 12일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취임.

▲李憲宰(법학62-66 前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지난 1월 11일 옛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 등의 퇴직관료 모임인 재경회 제7대 회장에 선임.

▲楊秀吉(화학공학63-67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지난 1월 17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경제협력개발기구·유엔환경프로그램·세계은행 등이 공동 발족한 녹색성장지식플랫폼(GGKP) 자문위원회 의장에 위촉.

▲金東建(법학65-69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지난 12월 30일 張旭鎭미술문화재단 제2대 이사장에 선임.

▲朴鍾秀(무역66-70 前우리투자증권 사장)=지난 1월 26일 임기 3년의 금융투자협회 제2대 회장에 선출.

▲李圭碩(지구과학교육66-73 한국교원대 석좌교수)=지난 12월 29일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제11대 회장에 선임.

▲崔鳳雄(제약68-72 前제일약품 전무·前명지약품 사장)=지난 1월 10일 유유 제약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洪斗承(사회68-72 前한국사회학회 회장·모교 사회학과 교수)=지난 1월 5일 한국하버드연정학회 회장에 취임.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최고 20% 가입비 혜택을 드립니다.

엔노블은 2009년 11월부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협력하여 동문 및 자녀분들을 위한 결혼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비 혜택은 물론 차별화된 만남 주선, 동문미팅파티 등 특별한 혜택으로 모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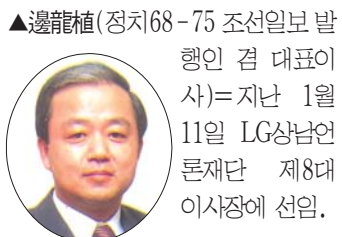
- 철저한 비공개 회원관리
-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약대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제휴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추천. 경향신문 유망브랜드 대상 수상
- KBS TV가이드 제휴사
-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邊龍植**(정치68-75 조선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지난 1월 11일 LG상남언론재단 제8대 이사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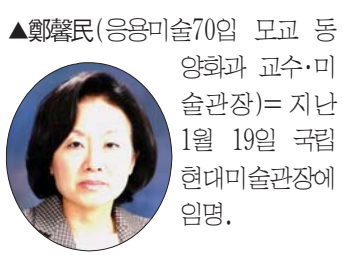
▲**金億兆**(공업교육70-7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장·사장)=지난 1월 18일 현대자동차 노무총괄 부회장에 선임.



▲**李昇鍾**(화학공학70-74 前모교 연구부총장)=지난 1월 5일 임기 3년의 한국연구재단 제3대 이사장에 임명.



▲**朴玉任**(농가정70-74 순천대 교수)=최근 임기 2년의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제13대 회장에 선출.



▲**鄭馨民**(응용미술70임 모교 동양화과 교수·미술관장)=지난 1월 19일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임명.



▲**金 塾**(사회70-77 駐유엔 대사)=지난 1월 24일 유엔 여성기구 회의에서 임기 1년의 집행이사회 의장에 선출.



▲**朴時龍**(농경제71-75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실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월 12일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겸 백상경제연구원장, HMG퍼블리싱 부사장 겸

발행인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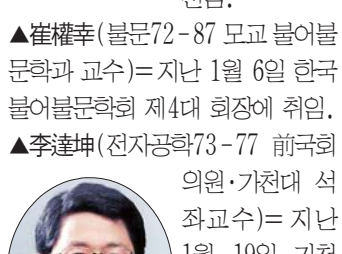
▲**尹在錫**(화학교육71-75 프레시안 이사·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1일 교통방송(tbs) eFM 해설위원에 선임.



▲**辛京珉**(사회71-75 前MBC 논설위원·이화여대 겸임교수·본보 논설위원)=지난 1월 1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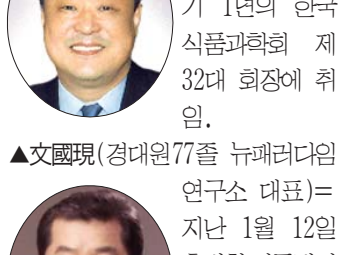
▲**金正來**(경영72-76 前현대정유전무·현대중공업 기획담당 부사장)=지난 1월 6일 현대중합상사 사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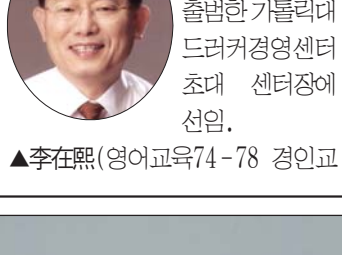
▲**崔權幸**(불문72-87 모교 불어불문학과 교수)=지난 1월 6일 한국불어불문학회 제4대 회장에 취임.



▲**李達坤**(전자공학73-77 前국회의원·가천대 석좌교수)=지난 1월 19일 가천대 글로벌컴퍼스 미래위원장에 선임.



▲**尹錫厚**(농화학73-77 한국식품연구원장)=지난 1월 6일 임기 1년의 한국식품과학회 제32대 회장에 취임.



▲**文國現**(경대원77졸 뉴캐러다임연구소 대표)=지난 1월 12일 출범한 가톨릭대 드러커경영센터 초대 센터장에 선임.



▲**李在熙**(영어교육74-78 경인교

대 교수)=최근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제9대 회장에 선출.



▲**高錫珪**(국사75-79 목포대 총장·광주전남지역 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최근 임기 1년의 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에 선출.



▲**全芳郁**(식물75-79 강릉원주대 교수)=지난 1월 17일 국무회의 동의를 얻어 강릉원주대 제2대 총장에 임명.



▲**蘇鎭光**(지리교육75-79 가천대 교수)=지난 1월 19일 가천대 글로벌컴퍼스대 외부총장 겸 대외협력처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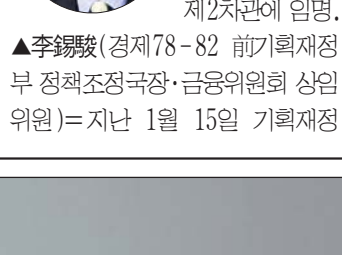
▲**韓大宇**(경제75-79 한국산업은행 자본시장본부장)=지난 1월 18일 한국산업은행 상임이사에 선임.



▲**李萬洙**(정치75-80 KNN 사장·한국방송협회 이사)=지난 1월 13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회장에 선임.



▲**趙 石**(외교77-81 前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지난 12월 6일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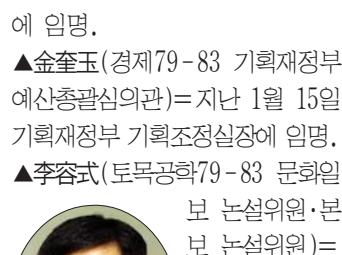


▲**李錫駿**(경제78-82 前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금융위원회 상임위원)=지난 1월 15일 기획재정

부 예산실장에 임명.



▲**金容煥**(무역78-82 前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지난 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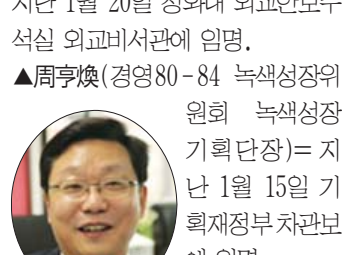
▲**金奎玉**(경제79-83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지난 1월 15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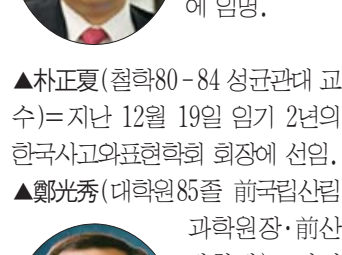
▲**李容式**(토목공학79-83 문화일보 논설위원·본보 논설위원)=지난 1월 9일 문화일보 논설위원실장에 선임.



▲**文吉模**(대학원79-83 회계법인 대표)=지난 1월 10일 전문가그룹 플랫폼인 비엔피그룹 회장에 취임.



▲**張虎鎭**(외교80-84 前외교통상부 북미국장·駐캄보디아 대사)=지난 1월 20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에 임명.



▲**周亨煥**(경영80-84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지난 1월 15일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임명.



▲**朴正夏**(철학80-84 성균관대 교수)=지난 12월 19일 임기 2년의 한국사고와표현학회 회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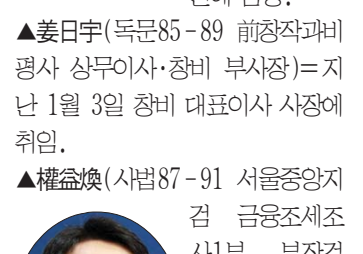
▲**鄭光秀**(대학원85졸 前국립산림과학원장·前산림청장)=지난 12월 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



▲**朴仁培**(물리86졸 前민족예술인총연합회 상임이사·극단 현장 예술감독)=지난 1월 10일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취임.



▲**金東亮**(행정대원84-86 前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기획재정부 예산실장)=지난 1월 8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임명.



▲**姜日宇**(독문85-89 前창작과비평사 상무이사·창비 부사장)=지난 1월 3일 창비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權益煥**(사법87-9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장검사)=지난 1월 20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에 임명.



▲**金重謙**(AMP 64기 한국전력 사장)=지난 1월 20일 2013년 10월 13~17일 열리는 대구세계여러지총회 제2대 조직위원장에 선출.



▲**崔孝錫**(AMP 67기 정우 회장)=지난 1월 18일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장에 취임.



▲**朱成皓**(AMPP 11기 前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물류항만실장)=지난 1월 8일 국토해양부 제2차관에 임명.



beyond the border
No.1 THERMAL POWER COMPANY

한국중부발전이 만들고
세계가 쓰는 전기에너지

한국중부발전이 세계 No.1 화력발전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이 만든 전기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미주에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과 영역을 확대하여 글로벌 발전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함께 쓰는 '세계 No.1 화력발전회사'를 향해 한국중부발전이 새롭게 도전하겠습니다.



아시아 (인도네시아 등)
 Cirebon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Tanjung Jati 석탄화력발전소 3·4호기 운영
Wampon 수력발전소 운영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
Luderitz 풍력발전단지 건설



아메리카 (미국 등)
Dry Lake Bed South 태양발전소 건설 및 운영

한국중부발전주
http://www.komipo.co.kr

행 사

▲盧然弘(HPM 18기 前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난 12월 11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에 임명.

▲徐 定(AIC 20기 CJ오쇼핑 영업본부장 부사장)=지난 1월 13일 CJ CGV 대표이사 부사장에 선임.

▲金圭圭(ACPMP 2기 前현대도 시개발 영업본부장·사장)=지난 1월 9일 대한주택보증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李官薰(ALP 3기 前CJ미디어 부사장·CJ 대표)=지난 1월 12일 대한통운 공동대표이사에 선임.

▲孫寬洙(ALP 6기 前CJ GLS 택배사업본부장·부사장)=지난 1월 16일 CJ GLS 대표이사에 취임.

▲金順子(ALP 12기 한성식품 대표)=지난 1월 13일 출법한 대한민국 김치협회 초대 회장에 선출.

▲成映穆(ASP 12기 前삼성물산 상무·前신라호텔 사장)=지난 12월 12일 조선포털 대표이사에 선임.

▲陳榮昊(ASP 20기 前군인공제회 부이사장)=지난 1월 9일 두산그룹 계열사인 비엔지증권 대표이사에 선임.

▲李在慶(IFP 1기 민주통합당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장)=지난 1월 25일 민주통합당 홍보위원장에 임명.

▲李在昌(법학56-60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지난 1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중앙연수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

▲司空晔(상학58-64 한국무역협회 회장)=지난 1월 25~29일 열린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

▲朴興日(영어교육60-64 한국기독교장로회연합회 회장)=지난 1월 14일 서울 도림동 종로교회에서 '직장선교 30년사' 출판기념회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1월 27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남북한 통일과 조약의 승계 문제'를 주제로 발표회 개최.

▲劉漢台(응용미술67-71 숙명여대 교수)=지난 1월 26~28일 일본 도쿄 긴자에 있는 갤러리 G2에서 '태극의 진화'를 주제로 개인전 개최.

▲金兌完(교육67-71 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 1월 10일 대전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선진 외국의 방과후 활동과 시사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鄭智澤(경영70-74 두산중공업 부회장·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지난 1월 11일 서울 63빌딩 주니퍼룸에서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李權雨(독문81-85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지난 12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작은 거인, 큰 도전' 출판기념회 개최.

▲鄭日永(행정81-86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지난 1월 10~12, 17~19일 두 차례에 걸쳐 원주오코밸리리조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가족들이 참가하는 '동계스키캠프' 개최.

▲박혜진(기악93-97 바이올리니스트)=지난 2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박재은(기악93-97 피아니스트)=지난 2월 11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슈만,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이태정(기악93-97 바이올리니스트)=지난 2월 15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과리의 열정'을 주제로 모차르트, 리벨 등의 작품 공연.

▲오혜승(기악95-99 바이올리니스트)=지난 2월 11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 바이올린 작품으로

'Romantic Breeze' 개최.
▲張有鎭(기악96-00 첼리스트)=지난 2월 15일 서울 신문로 1가 금호아트홀에서 바흐, 텔레만, 피아졸라 등의 작품으로 첼로 독주회 '慰勞' 개최.

▲백은교(기악03-08 바이올리니스트)=지난 2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스트라빈스키, 베토벤, 슈만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宋根浩(ACAD 33기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지난 1월 12일 서울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통일연구원 원장 金泰宇 원장을 초청해 '김정은 시대 남북 관계와 통일 안

보 과제'를 주제로 포럼 개최.
▲黃震夏(ACAD 42기 국회의원)=지난 1월 6일 경기도 과천시인화관 대공연장에서 '황진하 회고록' 출판기념회 개최.

▲權哲賢(SGS 3기 前駐일본 대사·세종연구소 이사장)=지난 12월 16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간 큰 대사, 당당한 외교' 출판기념회 개최.

▲安鎬元(HPM 6기 부천대 객원교수·수필가)=최근 설날을 기념해 수도권 지역 개척교회 10곳에 가래떡(40kg)과 쌀(300kg) 전달. 또 1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노인정을 방문해 떡국 대접.

! 참가 명복을 빕니다 !

- ▲盧明植(사학46-49 前한림대 교수)=1월 12일 별세(89세)
- ▲洪淳昊(영문56졸 국민대 명예교수)=1월 16일 별세(80세)
- ▲姜正大(상학52-56 전북대 명예교수)=1월 3일 별세(79세)
- ▲吳慶洛(행정54-58 前경상남도 부지사)=1월 9일 별세(78세)
- ▲朴勝國(국문54-58 前한성중 교장)=1월 7일 별세(77세)
- ▲宋吉憲(상학55-59 前신한생명 대표)=1월 2일 별세(80세)
- ▲崔重基(수의학61-65 前우성교역 대표)=1월 10일 별세(69세)
- ▲金相煜(전문기상68-72 前국토연구원 연구위원)=1월 7일 별세(63세)
- ▲李相哲(미학69-73 前서울시 정무부시장)=1월 22일 별세(63세)
- ▲朴容勛(AMP 34기 휴세코 회장)=1월 30일 별세(70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에너지기술 전략로드맵 2011」 e-book 열람안내

지식경제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2011년 국내·외 에너지 정책동향, 기술수준 및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에너지기술 전략로드맵 2011」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기술 전략로드맵 2011」 보고서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를 통해 e-book으로 공개하고 있사오니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에너지기술 전략로드맵 2011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 목적 에너지기술 수출성장 동력화
- 대상분야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 그린카 등 15개 분야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 목적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여
- 대상분야 전동기, 가전기기, 연소기기, 차세대 건조기 등 15개 분야



[자원개발기술 전략로드맵]

- 목적 에너지 안보 강화
- 대상분야 광물자원, 석유가스 등 8개 분야

열람방법

- (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로 접속
- (2) 메인화면 우측에 있는 Quick 메뉴 중 하단의 '에너지기술 전략로드맵' 클릭
- (3) 에너지기술 전략로드맵 창에서 열람을 원하는 로드맵 창으로 이동 후 바로가기 클릭
- (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창에서 로그인 후 열람
 - * 로그인 방법 ① 기존회원인신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② 신규회원인신 경우 회원가입 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기타사항

- ✓ 「에너지기술 전략로드맵 2011」 보고서는 e-book 형식으로만 제공되며, 파일은 다운로드하실 수 없습니다.
- ✓ 「에너지기술 전략로드맵 2011」 관련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미래전략연구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이정우 연구원 02-3469-8315, kudos@ketep.re.kr)

홍천사의 수원
사람이
반갑습니다



2012년 임진(壬辰)년 새해에도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수원이 되겠습니다.



물

희망이 흐르는 대한민국

물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원입니다.
생명을 키우고, 에너지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물.
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채워갑니다.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water



수자원시설 건설·관리
• 소양강, 충주댐 등 전국의 16개 다목적댐과 수자원시설 운영
•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용수공급

상하수도 건설·관리
• 전국 상수도 생산량의 49%를 차지하는 3,415백만 ㎥ 공급
•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하수도 통합운영관리

국가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
• 창원구미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
• 안산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 신도시 조성

녹색성장사업
• 시화조력, 합천호 수상태양광, 아래뽕길 풍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개발

해외사업
• 40여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21개국에 물 관련 기술 수출

청아한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2012 임진년!

희망찬 기운 아래 가족 모두 화목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청아치과병원을 아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울치대 제14회 김찬숙 | 서울치대 제39회 한영 | 서울치대 제31회 김혜숙
서울치대 제39회 홍윤기 | 서울치대 제39회 김혜현 | 서울치대 제57회 이수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8-22 (우)135-080 TEL. 02-556-6836 FAX. 02-569-2812 www.chonga.co.kr

GOLDEN GRAND SLAM

**세계 최초,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

2009년, 2010년, 2011년 올해의 항공사
아시아나가 세계 항공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루지 못한 하늘 위의 [골든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아시안항공
A STAR ALLIANCE MEMBER

신 간

■ 자폐장애

— 曹洙哲 외 지음



자폐 장애는 전반적 발달장애에 속하는 질환으로 소아기에 기대되는 사회성, 언어 또는 행동의 발달 측면에서 지연되거나 어느 정도 발달이 됐다가 퇴행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 책에서 모교 정신과학교실 曹洙哲(의학67-73)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이 총 16장에 걸쳐 자폐장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자폐장애의 원인, 평가, 진단, 치료, 예후 등을 설명하고, 자폐장애의 유병률과 국내 자폐장애의 실태를 소개한다. 또 바이러스 감염, 출생 전 스트레스, 홍역, 독성 급속 노출 등 자폐장애의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도 다뤘다. 〈학지사판·값25,000원〉

■ 암 올바르게 알고

제대로 예방하기

— 柳權永 지음



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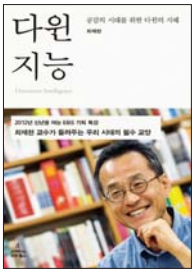
이 책은 생활 속에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암이란 무엇이며, 왜 암에 걸리는지, 생활습관개선을 어떻게 개선해 예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암이란 무엇인가?’, ‘나도 암에 걸리나요?’, ‘암! 완치되고말고!’, ‘암,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할 수 있다’, ‘당신과 함께하는 암 관리의 과제’ 등 총 5개의 장과 61개의 절로 구성돼 있으며, 암 질환의 원인과 폐암·간암·위암·대장암 등 암 환자의 사례, 식이를 비롯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 등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풀이하고 있다.

특히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내용이 폭넓게 소개돼 있는데, 이는 금연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더 불어 야채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도 절대 권장되는 사항이다. 〈서울대출판문화원판·값15,000원〉

■ 다윈 지능

— 崔在天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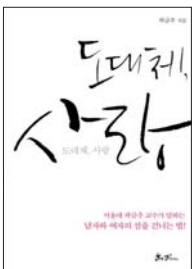


이 화여대 崔在天(동물73-77)석좌교수가 진화론의 핵심과 현주소를 짚어 보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된 지식 생태계에 동참하는데 필요한 다윈의 지혜를 알려주는 과학서이자 인문 교양서. 1백50여 년간 진화 이론이 발전해 온 과정과 진화론을 둘러싸고 벌어진 두뇌들의 설전, 그리고 현대 진화 이론의 핵심을 오롯이 담고 있다. 자연 선택 이론으로 대변되는 다윈의 진화론이 어떻게 DNA의 구조로부터 인류의 사회생활과 문명에 이르기까지 원리로서 작동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경제학을 비롯해 종교 논쟁, 21세기 인류 문명사회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현대 진화 이론을 자세하게 알아본다. 이와 함께 다윈 지능에 힘을 보탠 수많은 지성들의 업적들을 함께 보여주며 변화된 지식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언스북스판·값15,000원〉

■ 도대체 사랑

— 郭錦珠 지음



모교 심리학과 郭錦珠(가정관리77-81)교수는 관계 심리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신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모아두었던 모든 자료들을 토대로, 인생 최고의 관심사이자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랑’에 대해 심리학적 시선으로 접근한 첫 번째 사랑 에세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제대로 된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결국 같은 식의 사랑을 반복하며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남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해준다. 영화, 음악, 소설, 시 등 각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들을 예시로 들어, 기존의 어떤 에세이보다 훨씬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郭교수 특유의 담백한 필치와 논리적인 심리학적 근거를 통해 진지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 쌤앤파커스판·값14,000원〉

■ 철학하라

— 黃光祐 지음



불안의 시대를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철학적 지혜와 통찰을 담은 책. 이 책은 동서양 인문고전 40선과 함께 오랜 기간 고전을 연구해온 黃光祐(경제79-98)동문의 깊은 사유가 담긴 철학적 메시지를 담아냈다.

동양 편에서는 주로 나의 정체성과 나를 둘러싼 관계의 성찰을 담고 있으며, 서양 편에서는 정치·경제·철학·심리·법·과학을 살피면서 불확실한 세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사회가 불확실해질수록 ‘무너지지 않는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고전을 통해 어떻게 나의 중심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다. 〈생각정원판·값25,000원〉

■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 辛正根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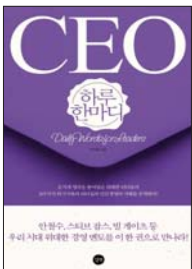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辛正根(철학84-88)교수가 ‘논어’를 모두 1백1가지 주제로 나눠 원문의 의미를 풀이한 책.

저자의 깊은 인생 강의와 함께 일상생활의 해당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선택, 결단, 이해, 희생, 귀감, 실력, 사명, 운명, 배움, 용기, 자기긍정, 관용, 사랑, 지혜, 믿음 등의 주제를 구체적인 문제에서 시작해 추상적인 가치로 끝맺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에 관련된 ‘논어’의 원문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강조하는 핵심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1세기북스판·값15,000원〉

■ CEO 하루 한마디

— 李義鉉 지음



대일특수강 李義鉉(AIP 20기)대표가 30여 년간 CEO로 활동한 경

험을 바탕으로, 사장으로서 마음수업을 해왔던 내용들을 정리해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1월부터 12월까지, 안철수, 스티브 잡스, 세종, 헨리福特, 이외수, 한상복, 마크 트웨인 등 조직에 영감을 불어넣은 위대한 동서양 리더들의 3백65가지 위기극복

공연

■ 鄭盛文 피아노 독주회

— 2월 20일 예술의 전당



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현재 중앙대, 서경대, 경인고대에 출강하고 있는 鄭동문은 이날 슈베르트, 라흐마니노프, 리베르만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 조유리 바이올린 독주회

— 2월 23일 예술의 전당



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개최한다.

코리아팔하모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 동문은 이날 슈만, 크라이슬러, 피아졸라 등의 작품을 선사한다. 〈공연문의: 에인예술기획 586-0945〉

■ 韓玉美 작곡발표회

— 2월 25일 예술의 전당

작곡가 韓玉美(작곡83-87 가톨릭대 교수)동문이 2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작곡발표회를 연다.

제23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바 있는 韓동문은 이날 ‘오 늘도 이런 날이었구나’, ‘하늘에서 죽은 새’, ‘나는 네 편이야’ 등 7편의 신작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 崔소녀 플루트 독주회

— 2월 26일 금호아트홀

플루티스트 崔소녀(대학원 03-05)동문이 2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귀국 플루트 독주회를 갖는다.

프랑스 생모르 오케스트라, 미국 Ludwig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한 崔동문은 이날 바흐, 라이네케, 뒤티의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임남희 피아노 독주회

— 3월 7일 예술의 전당



사이틀홀에서 슈베르트,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제3장 낭만II: 소나타’를 마련한다.

미국 이스트만 음대에서 피아노 연주 및 문헌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니스양상블, 미루스 트리오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공연문의: 에인예술기획 586-0945〉

■ 金到妍 비올라 독주회

— 3월 14일 예술의 전당



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관객과 만난다.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쉰부른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 중인 金 동문은 이날 로타, 술만 등의 작품으로 탁월한 연주력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에인예술기획 586-0945〉

힘을 바탕으로, 사장으로서 마음수업을 해왔던 내용들을 정리해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1월부터 12월까지, 안철수, 스티브 잡스, 세종, 헨리福特, 이외수, 한상복, 마크 트웨인 등 조직에 영감을 불어넣은 위대한 동서양 리더들의 3백65가지 위기극복

의 리더십과 인간경영의 지혜를 소개한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경영 멘토들이 남긴 다양한 메시지를 정리해 창업을 꿈꾸는 예비 CEO들과 리더로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독자들이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한다. 〈김벗판·값12,800원〉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1년 12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2011. 10. 28~2012. 1. 17)·일반(2011. 10. 27~2012. 1. 17)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회 장 林光洙= 5백만원
△부회장 金宗鎬= 50만원
△부회장 南正鉉= 1백만원
△부회장 金殷宗= 1백만원
△부회장 金明子= 50만원
△부회장 洪錫炫= 1백만원

관 악 회

△이 사 曹基浩= 30만원
△이 사 張慶作= 30만원

상임이사

△李祐宰 사회대동창회장= 20만원
△崔永喆 문리대동창회장= 20만원
△李文漢 대학원동창회장= 20만원
△李哲雨 경대원동창회장= 20만원
△朴英淑 CHCN동창회장= 20만원
△姜實根 ROTC동문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김성열 사대75
△김신섭大院84 △김유진 치대77
△김종암 공대83 △김창성 농대81
△김호석 농대83 △김홍선 자연77
△김흥기 사대61 △박남규 경영84
△박영호 상대67 △선우종원 법대41
△소병운 사회79 △송효순 SPAR6
△신인식 사대73 △양승규 법대56
△윤철종 保院87 △이광모 공대71
△전태욱 사대72 △정상근 상대68
△주영순 ACAD54 △최기연 공대71
△최대혁 사대81 △한용술 사대71

(일반) △강민성 법대88
△강석호 문리66 △고정아 사대01
△곽수태 공대78 △곽은영 음대82
△권대욱 농대69 △권형표 자연61
△김경동 AIP43 △김광석 AMP37
△김기종 FIP8 △김대식 ASP17
△김동섭 APC9 △김민혜 생활06
△김상현 공대05 △김성은 생활83
△김순모 공대56 △김영석 문리66
△김영화 敎院74 △김영환 HPM21
△김장화 사대54 △김태경 경영02
△김학겸 SPAR5 △김형준 공대71
△김홍엽 법대74 △김효진 치대95
△류판동 수의75 △민영식 의대80
△박남식 AIP30 △박달이 간호74
△박대복 공대61 △박무웅 상대64
△박영광 GLP23 △박윤희 음대74
△박종철 공대46 △손문영 ACPM7
△송선열 AMP70 △심정원 공대99
△심현철 문리68 △심형섭 공대65
△안경구 농대87 △안성도 사대58
△양귀애 음대69 △양재식 법대84

△오창식 농대91 △오탈형 자연95
△윤광기 사회90 △윤완석 사회73
△윤재철 경영99 △이명남 IFP4
△이봉열 미대57 △이봉환 공대77
△이상무 AMP40 △이상훈 농대05
△이성규 농대84 △이영욱 공대02
△이응원 AMP40 △이재성 공대00
△이주희 공대52 △이창식 SGS13
△이채욱 AMP54 △이필상 공대68
△이학규 FIP8 △이한석 FIP7
△임남재 의대57 △임영빈 ASP21
△임한중 의대51 △장영주 생활85
△장우진 공대92 △전 교 자연76
△전해상 AMP71 △정진섭 자연83
△조동란 간호66 △주재구 공대83
△최상규 AMPP10 △최종학 사대80
△최창근 공대66 △한길수 AFB8
△허규만 경영97 △허우녕 사회89
△황금택 농대75 △황종복 사대66
△황진성 ACPM6

이 사

◆인문대 △강병국78 △강은봉79
△권태우83 △김병철76 △윤상필84
△이수익76 △이숙희80 △조응래77
△추희엽83 △홍종선75
◆사회대 △강전석69 △권윤구91
△김 영79 △김용근84 △노택선79
△류성록82 △박찬욱72 △서동영79
△안준석84 △유두선83 △이계성77
△정봉교72
◆자연대 △김철호74 △신현철78
△양명룡74 △이경수75 △이동환77
△이종섭73 △전승준74 △최달영79
◆간호대 △권영숙74 △김영숙75
△김장연79 △남은숙75
◆경영대 △권기출72 △김수환82
△송영태69 △유병인69 △이해성73
◆공대 △강효순68 △고종인84
△구창용60 △김경범78 △김근희67
△김대식78 △김동성73 △김명린61
△김명수73 △김문경61 △김석홍81
△김선복62 △김영중76 △김웅범70
△김호수63 △남상률70 △노용래72
△문영기69 △박성현64 △박일휴61
△박재룡68 △박찬규59 △배건성73
△변창훈70 △서동원70 △서정만64
△송춘영67 △신덕철68 △안사은57
△안용수73 △안홍섭75 △오창석52
△윤경원92 △이금석59 △이병하69
△이상준64 △이석준83 △이순병68
△이장무63 △이재운63 △이종훈53
△이준혁85 △이홍준67 △이희승60
△임건목83 △임석철76 △임재열82
△장광훈78 △장세창65 △정석규48
△정성민61 △지성규71 △최수현65
△홍기준69 △황인석68
◆농대 △강철기76 △공홍표78
△곽지상52 △구현수67 △김규석63
△김일종69 △김정규65 △김종률72
△김진오69 △김태영82 △김학주64

△박선현71 △배기식54 △사공문72
△서완수58 △서정근59 △손해일67
△신용석61 △오박철61 △유이종71
△윤경섭65 △이병목64 △이승겸75
△임열재64 △정용문67 △조국광75
△최승호83 △최영규65 △허영주83
△홍동선56 △홍성표56
◆문리대 △고영재69 △구봉희62
△김문창61 △김진동58 △김태수54
△김하진58 △류성희61 △류지웅51
△문현석66 △박성훈69 △박혜란65
△변 형61 △서옥식69 △송진혁61
△안병근67 △오제운59 △오종발68
△이문규61 △이민섭59 △이상직66
△이승렬67 △이연희51 △이윤배67
△이정수59 △임병석54 △임석진52
△정구훈65 △정용두53 △조창희57
△최중기69 △허영준55 △한기호57
△한필순57 △황정식52
◆미대 △김 정70 △김종선74
△박소영73 △신현장65 △안종문60
△이동영76 △이진민83 △전민숙74
△조성애64 △한근석81
◆법대 △강대신63 △강이수58
△김규복69 △김민교89 △김부찬74
△김선환66 △김완섭65 △김정보67
△김진세61 △김찬식68 △김창열64
△김하남49 △노순길69 △류수열75
△박국수67 △박태훈66 △박홍우72
△박희문73 △서규택55 △서창희82
△성낙인69 △성문용63 △신명균62
△신영수70 △심우영59 △안상수64
△유화선59 △이건개59 △이건종72
△이경우76 △이동춘59 △이만석83
△이성로64 △이영주58 △이인기74
△임종훈73 △임태수56 △장상익72
△장호중85 △전용학73 △정경영79
△정기용77 △정대권75 △정대철62
△조근호77 △조용준79 △최병모67
△함영업57 △현경대60 △현재현67
△황의인74
◆사대 △강승호67 △강철용69
△권재술66 △김경수60 △김경자71
△김덕호73 △김종필46 △김홍섭73
△남창렬65 △민무일65 △박병기81
△박병익74 △박영태67 △박창욱78
△박형준60 △신영준81 △신용래52
△유경근58 △이숙향76 △이오봉61
△이호준60 △임광수68 △임향순60
△장 호66 △정기연72 △조규권76
△채미영82 △최운식63 △최태상53
△한준수76
◆상대 △강봉근64 △강승구65
△강웅식58 △권희택56 △김승훈68
△박병준51 △박용성59 △안재원59
△윤익수56 △이계문70 △이국희56
△이남수62 △이승섭50 △이영서61
△이윤우68 △이홍주60 △장병구64
△장종의58 △제만수61 △최기동70
◆생활대 △정영진68 △조성교69
◆수의대 △강경선60 △김기흥81
△김용팔75 △김진구61 △박근하76

△이강문60 △이상만48 △이성모78
△이원철74 △이충범65 △장광호75
△하태은80
◆악대 △강정훈63 △김동춘55
△김효중71 △남승국70 △원용환78
△윤효선53 △이용연72 △임경택52
△조우열65 △한정연65 △황봉자61
◆음대 △고광철82 △김광희68
△김순화70 △남지현85 △이유희68
△이준복68 △정복주66 △최성희80
△홍지영83
◆의대 △강신호46 △김동진68
△김명석62 △김상은77 △김서정86
△김용봉70 △박노현78 △박양희70
△박이태72 △성상현73 △안제환66
△양영식66 △유세화65 △이광우70
△이순탁44 △정경태53 △정동철54
△정종환56 △차인식72 △하일수76
△한홍무56 △황대웅80
◆치대 △구창서58 △권오양74
△김상철73 △박명종79 △박종만60
△서영수67 △안정모66 △안효일58
△양일수73 △연태호81 △우진오72
△이상재75 △이석형58 △이영대70
△이창우75 △장은식89 △정원용52
△조유동55
◆대학원 △김신섭84 △박명호76
△박우승81 △신동수92 △이광재78
△정문기81 △조태현79 △지충수71
◆경대원 △양승현71 △한기룡71
◆교대원 △김정휘73 △송향섭64
◆보대원 △김덕성71 △이형구91
△황석천60
◆신대원 △김우룡71 △유일연72
◆행대원 △곽대훈78 △김영화68
△남병홍78 △노일숙79 △반금환70
△윤 영84 △최상철64
◆한대원 △박경자76
◆AMP △김승배45 △김재욱11
△문해란45 △박상규31 △이대영67
△이정식13 △이주현45 △정건택21
△하준근59
◆AIP △남형수31 △박몽식16
△박양신20 △손석기41 △안정환11
△이상희15 △임종환15 △조원준29
△최윤환30 △홍성철34
◆ACAD △곽기영54 △김성조54
△신은우56 △이달화24
◆SGS △박종인5 △이동준14
△이용일3
◆HPM △강보영1 △김강희11
△김정자20 △선덕남4 △성치용4
△윤종필16 △이철희4 △최종기6
△홍광식3 △홍성희3
◆AMPP △김인신6 △염재구6
◆AIC △공업용21 △박경숙8
△박인주7 △송호룡19 △이경의5
◆AFB △강복순2 △문제민4
◆AMPFRI △문운봉15 △최재용23
△한기영3
◆ACPM △박영미1 △탁봉열3
◆GLP △김 설8 △양재길5

△윤여표11 △허수진14
◆SPARC △강정용11 △권희숙14
△김권진12 △박부순13 △손정우15
△이승련14 △정낙균15 △허상록11
◆ASP △오성환6

일 반

◆인문대 △강영선83 △강우석84
△강현주93 △김기태81 △김능구81
△김영인83 △김정은06 △김현동04
△박상연07 △박정진04 △박지수07
△방문규81 △서명관80 △서세림99
△신원식73 △신종진92 △유택형81
△이 건59 △이동림88 △이민주06
△이승섭85 △이왕돈75 △이유경85
△이은혜05 △이한구46 △장영종73
△정용모83 △정진기86 △진재기83
△최상이99 △하정숙82
◆사회대 △곽대환81 △김규수87
△김병훈99 △김봉주82 △김석기78
△김영빈81 △김은정02 △김철기72
△김태동83 △김현민01 △김환주82
△노창현81 △맹주석81 △민병덕90
△박광호80 △박지우01 △박희택96
△백승진03 △백승훈80 △상지원86
△서동섭01 △서의곤81 △신기덕74
△신상기69 △안균배81 △이 기73
△이남찬87 △이민형95 △이차복87
△이찬우84 △임영탁80 △임정학79
△장성호86 △장철호83 △전지혜04
△정구역73 △정달섭81 △정성희04
△정용진98 △정일배91 △정재호73
△주병훈90 △최종석00 △홍은표09
◆자연대 △강문기68 △강성구82
△김광영86 △김영규79 △김재우69
△김재우05 △김지수09 △김지환92
△김진규78 △김호신78 △박영준92
△박지용89 △오세명07 △유기용93
△유영만84 △이민영09 △이선주09
△이승환89 △임영익89 △전동오84
△전지원05 △정일교03 △조성일92
△최승주72 △허기수97 △홍지석98
◆간호대 △김잔디02 △이주현93
△장미혜83 △정명자57
◆경영대 △고희원97 △권영주06
△김거한76 △김동석69 △김의준72
△김지룡83 △나상호85 △류승철89
△류희달04 △민혜원08 △박병선98
△박봉호04 △박종호86 △신철호82
△양원덕85 △윤재민01 △이용석85
△정명기82 △정재연07 △최백경73
△함시창72 △황동철75
◆공대 △강응순71 △강태갑59
△곽기성81 △곽병근61 △권두섭57
△권순영52 △권오용74 △권희덕71
△김 영52 △김 영53 △김경민02
△김광선68 △김광열79 △김기복70
△김기준57 △김기풍50 △김덕원72
△김도민07 △김도수65 △김동규72
△김동원45 △김두현72 △김명호69
△김민철97 △김병태59 △김상수69
△김선엽07 △김세준94 △김영균71
△김영우03 △김인영72 △김임수57
△김재익69 △김재홍99 △김정덕69
△김정수67 △김정철76 △김종학74
△김종현57 △김주민91 △김지민00
△김창수58 △김창욱78 △김채형04
△김충은99 △김태문55 △김풍오68
△김학노70 △김현진56 △김형건04
△김홍곤76 △노한신79 △류운성97

△문호식77 △민병찬43 △박동환67
△박상재64 △박영진71 △박용철55
△박일웅08 △박종호77 △박천진09
△박현우07 △박희경73 △백봉근50
△변수근57 △서병은58 △서성수86
△서인원52 △서준원96 △석성봉55
△신경식49 △신달양75 △신동성64
△안동만66 △안상순65 △안세호03
△안우희64 △안종찬69 △양인철64
△여신영09 △여인선75 △여인선75
△염재흥03 △염희택46 △오익환56
△오인택59 △오창국92 △우상렬52
△원경식77 △유건환56 △유근중97
△유인상63 △유준만63 △유홍일00
△유희봉66 △육광수46 △윤상로68
△윤여경48 △윤영찬67 △윤형돈94
△이광원69 △이기영03 △이동정71
△이명호89 △이민중79 △이상경68
△이상선64 △이성기03 △이성기58
△이소원07 △이승아03 △이승호86
△이양성48 △이영근54 △이우현52
△이재욱97 △이정우65 △이지용05
△이창섭70 △이형원04 △이호원97
△임시선84 △임정명58 △전구현54
△정 현92 △정민욱07 △정상진68
△정성문86 △정연수05 △정은용46
△정진건64 △정태중48 △제해찬74
△조민식09 △조용재51 △조재준02
△조정호65 △주관정76 △진석현56
△채정병02 △전두만95 △최규식00
△최금영64 △최세근06 △최영박48
△최정혜66 △최정희93 △최현수85
△최호진78 △하태광64 △한병복46
△한상윤51 △한영수65 △황용희85
△황정수62

◆농대 △강용신54 △강인섭73
△강창식56 △고영근78 △고영근78
△고일성69 △곽은주97 △권순희89
△김 현58 △김규식68 △김동준44
△김명권81 △김명주84 △김민경09
△김윤조89 △김인기60 △김재운64
△김정특76 △김종근90 △김종호84
△김진근71 △김찬조49 △김택현78
△김호일68 △김희창61 △노재후60
△민범식48 △박경제70 △박명영89
△박미령72 △박영환64 △박윤근55
△박정근63 △방화원80 △배정웅64
△서영섭50 △서정영82 △서종혁66
△송경호56 △송성권97 △심응남05
△양승엽52 △양종성57 △어문정07
△여규동66 △유병후73 △유일웅64
△육승범00 △윤백현75 △윤여성76
△윤창원67 △이 흥61 △이광웅61
△이광희84 △이기창51 △이달문62
△이병근67 △이수오67 △이순혁59
△이영치61 △이영호68 △이장환58
△이종화51 △이형익64 △이희영50
△임성만84 △임성자77 △임승룡55
△장석환58 △장세영57 △장우상63
△장정동51 △장혁준06 △전종갑72
△전형근79 △정민환65 △정춘희57
△조빈행58 △조선호54 △주승훈96
△진광혁53 △최영호61 △최재복54
△최한식54 △표한승99 △한명수74
△허정수60

◆문리대 △강기진63 △강상규69
△강세원56 △고상빈50 △곽만섭57
△김 욱69 △김근수65 △김근호56
△김대전59 △김명환57 △김상욱68
△김세중65 △김순섭57 △김용훈61
△김윤수57 △김인관55 △김종섭51

△김주대53 △김한도56 △남성우59
△노계원58 △노영림66 △노태돈67
△노태돈67 △박영순68 △박종관60
△백영일67 △서지원70 △성명제54
△신현영62 △안상경54 △안원태52
△엄규백52 △오봉환61 △오행조61
△오현승65 △유기성71 △유병길68
△윤석태61 △윤용식59 △이건학54
△이규호72 △이민우61 △이성화58
△이목재58 △이종명54 △이종혁51
△이주형65 △이준희60 △이필숙60
△이현기54 △인오룡70 △장내식65
△장영태64 △전광현57 △전종구70
△전혜자61 △조성호64 △조용직60
△조희근71 △주순호51 △주영태60
△채경숙64 △최 웅69 △최 혁60
△최인승58 △최준기48 △최흥천53
△표재명54 △홍승호57 △황정웅45

◆미대 △강웅기94 △고병복56
△김기미81 △김용진79 △김현경86
△박동진82 △박석환53 △배경희02
△변대성54 △서효숙81 △송근영86
△오병인57 △유영준58 △이혜인64
△장정학60 △장정학60 △정병구66
△정영조55 △정명숙58 △최동신60
△최인수66 △황완숙82

◆법대 △강명식61 △강재섭67
△경익현57 △곽종훈71 △김경룡68
△김경태84 △김계인64 △김병구84
△김수남78 △김용섭63 △김윤철48
△김응우85 △김일철65 △김정준02
△김주원82 △김준호52 △김지현06
△김진태83 △김태곤05 △김현영63
△김형두52 △남기룡56 △노생만81
△문해성58 △박상형48 △박정식51
△박찬문87 △박창훈78 △박정석62
△방극성74 △백대균99 △백대현50
△서정석77 △석재명95 △성순경54
△신영민75 △심훈종56 △양수일62
△양희수62 △여정구74 △오양호80
△오영진65 △오홍석71 △유상순76
△유홍섭78 △윤정석55 △윤지훈03
△이경배59 △이근윤76 △이기석76
△이상지63 △이상호85 △이상희07
△이승철81 △이인수89 △이정렬96
△이종환59 △이지수06 △이지영98
△이진수00 △이철승78 △이춘식52
△장원관71 △전성관90 △정기돈78
△정덕모75 △정연복84 △정재일52
△정재형58 △정주택67 △정진영77
△정철승89 △정현국56 △정형식81
△조승우94 △조영길84 △조왕제55
△조형숙51 △조현수78 △최중현59
△함민식59 △함석재57 △형대우62
△황경진52

◆사대 △강민경03 △강순규76
△강신호55 △김기우76 △김남일75
△김동균63 △김명수68 △김명자45
△김상욱80 △김수연87 △김왕근79
△김은재45 △김은호90 △김재철71
△김정인85 △김종옥39 △김준겸05
△김현주79 △김현근59 △김형주50
△나병소66 △노경주78 △목영부54
△문일성53 △문제세71 △박기석65
△박문환82 △박영덕49 △박영자46
△박종석84 △박지영07 △박장민65
△박희용65 △반상경06 △방영선75
△배성제81 △백승용86 △백준현97
△서덕현69 △서동엽86 △서주만57
△석경징60 △석종복72 △성시연01
△손낙철49 △손영실98 △손충익56

△심상석58 △심우엽70 △에원혜61
△유남두57 △유양선56 △유영선86
△윤석원68 △윤인식65 △윤혁준04
△윤혜경86 △이기정84 △이대환76
△이도영82 △이면우78 △이무일63
△이문영02 △이상광03 △이상교61
△이상규56 △이새롬03 △이성영81
△이수찬56 △이옥순54 △이용현53
△이우식56 △이은구83 △이정수83
△이종철75 △이태준48 △이태현82
△이한준93 △이형석84 △이형준70
△이환기81 △이휘자60 △이희환56
△임길선83 △임원종52 △장병기71
△장영호77 △장유미99 △전쌍식87
△전종윤67 △전택수71 △정인형65
△정탁영85 △주낙서57 △최동표04
△최진복75 △추병완81 △허경욱52
△홍학순53

◆상대 △강화중68 △곽영홍57
△권영대56 △김덕윤65 △김범일69
△김영수47 △김영하61 △김용은53
△김용일68 △김종찬57 △민경효57
△박광보55 △박명배64 △박명식59
△박병환50 △박용희53 △박원규58
△박좌용48 △박풍아62 △박해용56
△신인수53 △심문섭54 △오영욱45
△유재윤68 △윤영원55 △이건희56
△이규중65 △이기주46 △임종수70
△전인홍54 △정문화71 △정하규51
△조선웅51 △지영식57 △탁승호65
△한정기69 △홍대원71 △황정길62

◆생활대 △권덕윤84 △김순오55
△김옥자58 △박순이74 △오광숙60
△윤혜원62 △이미세72 △전주리03
△정유선89 △조규연58 △최규련74
△황신영06

◆수의대 △곽기종55 △김길성60
△김명중59 △김병기68 △김봉태94
△김종태64 △류기승60 △명수남54
△박선규60 △서창우63 △예재길72
△이경환60 △이생근78 △이재진59
△이종화53 △이중희49 △이철우55
△임준기77 △조영선78 △조용호83
△최지희97

◆약대 △김병규68 △김영남62
△김재왕5 △류한호60 △박정희51
△변정수96 △서길항00 △성태현70
△심관섭52 △양영자51 △우제남69
△우제안57 △유용근54 △윤미향88
△윤형중57 △이갑열53 △이강주54
△임현정68 △장돈용72 △장동필86
△정종환73 △조미정87 △조윤욱85
△조철원57 △최기철53 △최흥관69
△하성상58 △홍은기57

◆음대 △김기홍80 △김숙이73
△김준희96 △나석주00 △문영애65
△박기범98 △박노경54 △박희덕77
△백소민07 △서유석89 △서윤진94
△서은영80 △서정현07 △송태균65
△오진욱68 △윤숙정07 △윤이근74
△이기원76 △이문경76 △이상미84
△이영심78 △이지영01 △이종석72

△장수영03 △장해리82 △정진원82
△정혜선81 △조윤경91 △주선희07
△차경아87 △채완병58 △최승용78
△최영택74 △홍명숙74 △홍부자60

◆의대 △구본술50 △김상수87
△김찬옥47 △김형규55 △민영식80
△박용화55 △배진선58 △변종훈69
△신상만61 △심정연85 △이기주85
△임대정91 △임한종51 △전형경88
△정용인68 △정의홍75 △정환보81
△조남혁70 △지창도01 △채희동86
△최준호69 △홍혜경97

◆치대 △구옥경62 △김강주79
△김경현87 △김동화56 △김영호58
△김정태66 △김효은82 △박승오62
△박재용98 △백위현66 △서명우83
△송재용82 △심정민87 △안 박60
△오안민60 △은세원81 △이만섭57
△이인경82 △이태영67 △장인철73
△정윤석73 △정병구58 △주관철59
△차영남67 △최남섭73 △현기용77

◆대학원 △권병남81 △김윤자83
△김종필93 △김진우86 △문재석80
△박준수85 △백진호96 △송희영90
△안혜경00 △이기형83 △이범수85
△이수형78 △이재봉79 △장성모79
△조재연82 △진정훈93 △한성수80
△허찬수72 △황인자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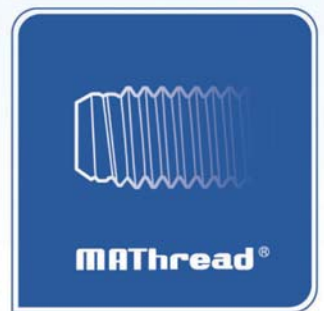
◆경대원 △김성준92 △이종렬88
◆MBA △봉한중09
◆교대원 △김종기64

Greentech Fasteners promise Your Profit



Greentech Fastener

세계가 인정하는 라이선스 기술로
30년 역사의 진함이 만든 경쟁력있는 브랜드—
친환경, 코스트절감형 고기능 볼트 **Greentech Fastener**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8-12
Tel. 070 7430 1800 Fax. 070 7442 7785

www.jinhap.com / jinhap@jinhap.com



JINHAP

◆보대원 △경광현⁶⁵ △권주한⁹⁹
△김대규⁶⁴ △김윤주⁸⁹ △문성환⁶⁵
△박당우⁶² △부원정⁶⁵ △서광석⁷⁹
△서석권⁶⁴ △유승진⁹⁹ △장규진⁶⁴
△정상조⁶⁷ △조춘국⁸⁴ △주은영⁶⁶
△최용근⁹¹
◆신대원 △김기도⁷² △안성근⁷³
◆행대원 △김부경⁸⁴ △김원영⁷⁰
△김정중⁹⁴ △노선호⁶⁸ △성낙승⁶⁹
△이명노⁶⁵ △이창희⁸² △임동완⁶⁰
△임의택⁸³ △조미진⁶⁵ △최재열⁸⁰
△류수현⁶⁸ △한동범⁶¹
◆현대원 △김 석⁹² △박춘배⁷⁷
△윤종식⁸⁹ △이재호⁹⁹ △이정미⁶¹
△정진용⁸⁷ △최은정⁹⁹
◆AMP △곽병구¹⁷ △김광현⁶⁵

△김병국⁵¹ △김연길⁷¹ △김일기¹⁷
△김정국¹⁴ △김필수²⁵ △남기욱³²
△노선호²⁴ △문동환⁷¹ △문정국³¹
△박병역²⁰ △박영대¹ △박홍래¹⁰
△박희갑⁶⁰ △서보암⁶² △손수달³⁷
△신문범²³ △심행진¹⁶ △안종표³⁶
△안희관⁵⁶ △염병만⁷¹ △왕기철⁴²
△이규식⁵⁴ △이동우⁷¹ △이병달²³
△이석범³¹ △이성섭⁴⁶ △이순세²²
△이종호⁷¹ △이준식³⁵ △이찬국⁴⁶
△이창호³⁷ △이재욱⁵⁴ △이현국¹³
△정귀열⁵⁹ △정의순⁴ △정장현⁴⁰
△정하덕²³ △주영연⁹ △차정의⁴⁴
△천병섭¹⁰ △최병면⁴¹ △최종욱¹⁵
△허 송⁵⁰ △홍연우⁵⁴
◆AIP △고귀선¹⁹ △권오열²²

△김선경⁴¹ △김승길¹⁰ △김윤필³²
△김정만⁴¹ △남상봉²⁶ △노완구¹⁸
△문규원¹⁰ △박남식³⁰ △박종우⁶
△박현택⁴⁵ △박형국¹² △배주호⁴³
△송주근⁴⁵ △이명래¹⁹ △이상록³⁵
△이인선⁴⁵ △이인자³¹ △이태화¹⁶
△임은재⁴⁵ △전재홍⁴³ △정영계³³
△조동근³³ △최원태²⁶ △한미학⁵
△허정광¹⁹ △홍강지³⁰
◆ACAD △김광수⁶² △김춘식⁴¹
△김태환³⁸ △노재우¹⁶ △박노석⁷¹
△박동근⁴¹ △박명서²⁷ △박선만²⁵
△박종근⁷¹ △서정만¹⁸ △손풍삼²¹
△신현대³¹ △유성훈³⁴ △유승봉⁶⁹
△유영우³⁵ △윤석준³³ △이범진⁴⁸
△이범희⁶⁸ △이양호¹⁸ △이연수⁷²

△이정구²² △장공진⁷² △조현형³⁵
△한형석⁷²
◆ABP △김현운²⁰ △박정호³⁸
△백형욱³⁶ △서규찬³⁶ △소상국³⁸
△연기현²⁸ △이상래²⁴ △이은석³⁶
◆SGS △강영안²⁵ △김기문²⁶
△김재경¹ △남궁근¹⁶ △신경근²⁷
△윤 건⁴ △정인숙²⁶ △최상석²
△최송후²² △최호운¹⁸ △황선주²⁷
◆CHCN △예숙은¹¹ △이서현⁵
◆APC △강대가⁴ △정현중⁹
△주재현⁴
◆HPM △권부옥¹ △권용준²⁷
△김동량²⁷ △김상용¹² △김진식²⁷
△김현수² △나호준²⁷ △박호영¹⁴
△이영태¹⁴ △정희순¹⁴ △조동순²⁷

△채상식¹⁷ △하경호²⁷ △하덕성⁵
△황대용²⁶
◆AMPP △최종인²
◆AIC △김운식²⁹ △박명희¹⁴
△성기혁¹³ △안병석³¹ △웅상순⁷
△윤재영⁷ △이국세¹² △이규천³¹
△이호준³⁰ △정성천³¹ △정재균²
◆AFB △강희갑¹¹ △김명중¹⁰
△김지용¹¹ △박 연¹¹ △박광명⁸
△백옥석⁵ △송민순¹¹ △안순율⁸
△오수연¹¹ △이광연⁹ △이용택¹¹
△이재정¹¹ △조재천¹¹ △홍경래¹¹
△황영근¹¹
◆AMPFRI △송희순²⁰ △윤평원⁹
△이유인⁷ △장선희²³ △최동식²¹
◆ACPMF △김임배² △김희현⁶
△남관우⁵ △박병창⁷ △박정호⁷
◆FIP △김인중⁸ △문영호⁸
△박상기⁵ △신중구⁴ △이부일²
△이신호⁷ △장성욱⁵ △정재익²
◆GLP △김강호⁴ △김태형⁹
△박종익¹⁸ △신현운²¹ △오택삼²³
△원석희²³ △이용섭¹⁸ △임근득²³
△임종호¹¹ △전진규¹⁶ △정연택¹⁰
△최승락⁵ △최윤석¹⁵
◆ALP △노연길¹⁰ △우동혁¹³
△윤장섭¹² △이병철⁷ △이상현¹¹
△이승림¹¹ △장재권¹³ △최우영¹²
◆SPARC △최평규⁴
◆AFP △김문환⁸
◆ASP △김정오²¹ △김학현¹⁷
△김현근²⁰ △노경학²¹ △신동진¹⁵
△채수철¹⁵ △한기온¹⁹
◆IFP △김문학⁵ △김진동⁵
△심명석³ △정재성²
◆BCP △오영호²

장학빌딩 건립기금

(추가 납부 및 수정자)

◆1억3천1백만원
△김일환(문리대64)
·최은규
◆8천2백만원
△김영진
·그린장학회
◆6천9백50만원
△이원규(농대58)
◆1천만원
△박종식(사대54)
△최명진(사대65)
◆3백만원
△유병욱(사대54)
△사대가정교육과
64학번동기회
◆2백만원
△김외숙(가정대72)
△옥선화(사대68)
△윤복실(사대55)
△이정우(사대55)
△임정빈(사대57)
△정옥분(사대66)
△조명희(사대67)
△조복희(사대67)
◆1백50만원

△서병숙(사대55)
◆1백30만원
△최창운(의대78)
◆1백만원
△강이주(사대65)
△구재욱(사대68)
△권훈정(가정대78)
△김경례(사대66)
△김대년(사대67)
△김명자(사대65)
△김민자(사대67)
△김민정(가정대78)
△김병애(사대66)
△김영신(가정대72)
△김용숙(가정대69)
△김종립(사대66)
△김학주(사대57)
△김혜경(사대65)
△김혜경(가정대72)
△남윤자(가정대81졸)
△명복현(사대56)
△모수미(대학원75졸)
△박명희(사대67)
△박영애(가정대69)
△박용숙(사대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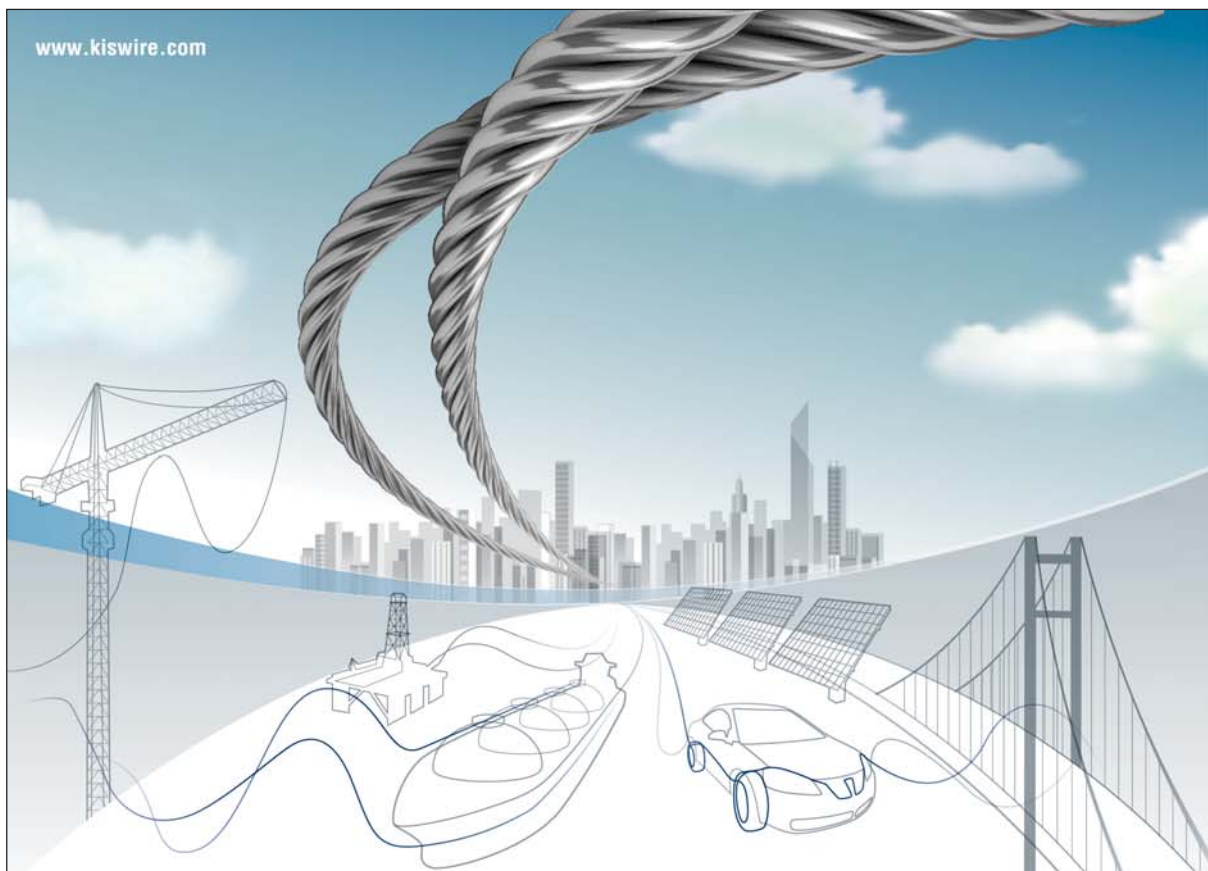
△박용욱(사대67)
△박태은(사대67)
△손상희(가정대77)
△송남순(사대65)
△송인숙(가정대75)
△신화용(가정대71)
△안영희(사대57)
△여정성(가정대79)
△우경자(사대61)
△유영숙(사대67)
△유영주(사대57)
△유혜영(사대67)
△윤명숙(사대67)
△윤봉원(사대56)
△윤정혜(가정대74)
△윤종희(대학원77)
△이기영(사대66)
△이기춘(사대61)
△이병한(사대65)
△이순원(사대54)
△이순형(가정대70)
△이승신(가정대73)
△이연숙(가정대70)
△이은희(가정대76)
△이인자(사대55)
△이재연(가정대70)
△이정애(사대67)
△이희숙(사대67)

△이희주(사대56)
△정창용(사대66)
△정현희(가정대72)
△최정신(사대67)
△추은주(사대66)
△한경자(사대66)
△홍산윤(사대57)
△홍옥희(사대67)
△홍형욱(가정대69)
△황덕순(가정대72)
△황효숙(사대65)
◆50만원
△김암이(사대66)
△김은숙(사대66)
△방효석(사대56)
△손경희(사대65)
△이영자(가정대65)
△이정덕(가정대55)
△장백경(사대65)
△장재정(사대65)
△정하진(사대57)
◆20만원
△김순녀(사대55)
◆10만원
△변상영(의대07)
△정경순(농대72)
△정현순(농대79)

분담금

◆시드니지부 565,000원

12월 계 : 46,705,000원
평생회비 : 33,520,000원
입 회 비 : 430,000원
총 계 : 1,096,903,257원



와이어가 함께 여는 세상

세계 곳곳의 산업 현장과 일상 생활에서
고려제강의 와이어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이 됩니다.
미래의 새로운 길,
고려제강의 와이어가 함께 열겠습니다.



고려제강은 스프링 와이어, 비드 와이어, 스틸코드, 아연도 강연선, Wire Rope 등의
제품을 생산, 전세계에 공급하는 특수선재 전문기업입니다.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앞서가는 생활 속에는 늘 삼성전기가 함께합니다

모두가 꿈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세상을 연 스마트 폰,
집에서 즐기는 놀라운 입체 영상의 3D TV,
간편한 무선 인터넷 세상을 연 태블릿PC,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
세상을 함께 성장시키는 맨 앞에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리더 - 삼성전기



◀ 혁신센터
김하나 대리

LCD 전략 마케팅
이예나 사원

▶ 인사팀
백지혜 주임

▶ 중앙연구소
류지만 선임

▶ 설비자동화
하승원 주임

미래를 창조하는
첨단기술, 첨단부품



삼성전기 SAMSUNG

하생2011-100호

하나금융그룹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일 하나HSBC생명이라면 든든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에 대응하는 HSBC그룹의 창의성과
국내 고객에게 더욱 믿음직한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이 만나
당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입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센터 080-3488-7000

하나 HSBC
생명보험